국립국어원 2016-01-30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요약 보고서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貴下

귀 국립국어원에서 의뢰한 조사용역사업인「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주관기관 : (주)월드리서치
연구책임자 : 김 창 영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 성 규 교 수
김 현 교 수
강 상 석 선임연구원
고 혜 지 주임연구원

요 약 문

◆ 연구 용역 목적

본 용역 연구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라는 제목 아래 수행된 것으로 올해 첫 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용역은 발음 및 의식에 대한 전반적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발음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국민의 발음에 대한 관심 및 경험 등 발음 관련 의식과 실제 발음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에 사용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표준 발음 정책 입안 및 언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연구 용역 방법

본 연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①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표본설계를 한다.
② 전문가 회의를 통해 조사 지표를 구성 한다.
③ 면접원 교육을 통해 본 용역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④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⑤ 조사된 자료를 전사 및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정리·분석한다.

◆ 연구 용역 내용

번 호	부 문	조 사 항 목
1	의식	◆ 국어에 대한 관심 ◆ 발음 관련 경험 ◆ 발음 관련 정책
2	발음	◆ 이중 모음 (노예, 차례, 비례, 장례, 용례, 실례, 결례) ◆ ㄴ, ㄹ 연쇄 (한랭, 상견례, 공권력) ◆ ㄴ 첨가 (금융, 작열, 강약, 선율, 야금야금, 핵연료, 낯익은, 몰인정, 생이별, 좋군요, 나는야, 서른여섯) ◆ 사잇소리 (수놈, 안짐힘, 존댓말,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인기척, 뱃멀미, 해님, 장맛비, 밤새, 김밥, 찜닭) ◆ 경음화(고가, 체증, 창고, 교과서, 효과, 물질적, 불법체류, 길짐승, 날짐승) ◆ 자음군 단순화 (긁고, 긁지, 긁는다, 읊고, 읊지, 읊는다, 밟고, 밟지, 밟는다, 맑지, 맑다) ◆ 공명음 뒤 'ㅎ'탈락(오해, 남해, 은행, 방해, 결혼) ◆ 체언 어간 변화(닭을, 여덟이, 값을, 무릎에, 부엌에, 낮에, 숯에, 솥에, 넋을, 흙을) ◆ 용언 어간 변화(주워서, 붇기, 나무라요, 나무란다, 바라, 바란다) ◆ 기타(고랭지)

목차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3
2. 조사 설계 ····· 3
3. 조사 내용 ····· 4
4.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6
5. 사전조사 ····· 7
6. 실사 ····· 9
7. 자료처리 ····· 11
8. 응답자 특성 ····· 14

2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1] 주요 조사 결과 ····· 19

1. 의식 부문 ····· 19
2. 발음 부문 ····· 20

[2] 조사 결과 요약 ····· 21

1. 의식 부문 ····· 21
   1.1 국어에 대한 관심도 ····· 21
   1.2 표준발음 사용 정도 ····· 23
   1.3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25
   1.4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 27
   1.5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29
2. 발음 부문 ····· 31
   2.1 “예”의 발음 ····· 31
   2.2 ‘ㄴㄹ’연쇄의 발음 ····· 32
   2.3 ‘ㄴ’첨가 ····· 33
   2.4 사이시옷 ····· 35
   2.5 겹받침 ····· 43
   2.6 공명음 사이 ‘ㅎ’탈락 ····· 45
   2.7 재구조화 ····· 45
   2.8 용언의 활용 ····· 47

[3] 항목 간 교차분석 ····· 48

1.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의 연관성 ····· 48
2.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의 연관성 ····· 48
3. 표준발음 의식과 표준발음 일치율의 연관성 ····· 49
4.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 50

[4] 결론 및 제언 ····· 51

1. 조사 결과 측면 ····· 51
   1.1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및 의식 ····· 51
   1.2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51
   1.3 표준발음 일치율 ····· 51
2. 발음 정책 측면 ····· 52
3. 조사 진행 측면 ····· 55
   3.1 실사 준비 ····· 55
   3.2 실사 진행 ····· 56

그림 목차

그림1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21
그림2 : 표준발음 사용 정도 ····· 23
그림3 :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25
그림4 : 비표준 발음관련 태도 ····· 27
그림5 :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29
그림6 :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 연관성 ····· 48
그림7 :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 연관성 ····· 49
그림8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49

표목차

표1. 국어에 대한 관심도 ····· 22
표2. 국어에 대한 관심도 ····· 22
표3.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23
표4.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24
표5.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26
표6.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26
표7.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 28
표8.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 28
표9.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30
표10.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30
표11. “ㅖ” 발음 ····· 31
표12. “ㄴㄹ” 연쇄 발음 ····· 32
표13. “ㄴ” 첨가 ····· 33
표14. 사이시옷 ····· 35
표15. 겹받침 ····· 43
표1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45
표17. 재구조화 ····· 45
표18. 용언의 활용 ····· 47
표19.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 50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한국어의 발음 현황 및 표준 발음 관련 의식을 측정·분석하여 향후 표준 발음법 개선 및 어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 설계

구 분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1 조사 대상	전국 만15세 ~ 60대 남녀
2 유효 표본	총 2,000표본
3 표본 추출	집계구 활용, 다단계 층화집락추출
4 조사 방법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5 조사 기간	2016년 7월 5일 ~ 8월 21일
6 조사 기관	㈜월드리서치

3. 조사 내용

본 조사는 표준 발음 관련 의식 조사와 발음 조사 등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의식 부문은 국어에 대한 관심도, 발음 관련 경험, 발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총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별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음 부문은 '이중모음', 'ㄴ,ㄹ 연쇄', 'ㄴ 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기타' 등 총 10개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지며, 각 음운 현상은 표준 발음 정책 관련 논의가 필요한 발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의식 부문

구 분	내 용
국어 관심도	➡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발음 관련 경험	➡ 평소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주변사람에게서 잘못된 발음 지적한/지적받은 경험
	➡ 본인의 발음에 기준이 되는 매체/정보원
	➡ 평소 사용하던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님을 인식했을 때의 행동
발음 관련 정책	➡ 표준 발음 규정 필요 정도
	➡ 표준 발음법 교육 필요 정도
	➡ 표준 발음법 조사/정비 필요 정도
	➡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바람직한 방향
	➡ 표준 발음법 개선 주체/기관

3.2 발음 부문

구 분	내 용
이중모음	➡ 차례, 비례, 장례, 용례, 실례, 결례, 노예
ㄴ,ㄹ 연쇄	➡ 한랭 기후, 상견례, 공권력
ㄴ 첨가	➡ 작열, 금융, 선율, 강약, 핵연료, 낯익은, 야금야금, 서른여섯, 생이별, 몰인정, 좋군요, 나는야
사잇소리	➡ 안간힘, 밤새, 인기척, 김밥, 뱃멀미, 해님, 수놈, 인사말, 존댓말, 반대말, 머리글, 편지글, 장맛비, 찜닭 가로수 길, 둘레길, 장사 일, 빨래 바구니, 새우 살
경음화	➡ 물질적, 창고, 교과서, 효과, 체증, 날짐승, 길짐승, 고가, 불법 체류
자음군 단순화	➡ 긁지, 긁고, 긁는다, 맑다, 맑지, 밟고, 밟지, 밟는다, 읊고, 읊지, 읊는다
공명음 뒤 'ㅎ'탈락	➡ 오해, 은행, 결혼, 방해, 남해
체언 어간 변화	➡ 솥에, 숯에, 부엌에, 무릎에, 낮에, 넋을, 값을, 흙을, 닭을, 여덟이
용언 어간 변화	➡ 바란다, 바라, 나무란다, 나무라요, 붇기, 주워서
기타	➡ 고랭지

4. 모집단 및 표본 설계

4.1 모집단

전국(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조사가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섬 거주자는 모집단에서 제외한다.

4.2 표본 설계

표본 추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을 각각 60%와 40%로 유의할당한 후 각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의 세부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확률비례추출방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을 이용하여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1개의 읍/면/동에서 20명씩 조사)

표본가구는 랜덤으로 선택한 시작 가구로부터 20가구 조사하되, 가구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첫 번째 가구에서는 첫 번째 가구원 조사, 두 번째 가구에서 두 번째 가구원 조사 등 네 번째 가구까지 동일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다섯 번째 가구에서는 다시 첫 번째 가구원을 조사하며, 해당 가구원이 부재 중이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바로 윗사람을 조사하였다.

5. 사전조사

5.1 목적

본 조사는 이례적으로 일반 면접원을 활용한 대규모 발음 현황 수집 조사로 조사 과정 상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발음 수집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5.2 개요

사전조사의 설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1 조사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60대 남녀(70대 이상은 미대상)
2 조사지역	○ 전국
3 조사방법	○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4 표본추출	○ 특·광역시/시·도별 강제할당 후 성·연령별 균등할당
5 유효표본	○ 총 120명
6 조사기간	○ 6월 9일 ~ 6월 19일(11일간)

사전조사에서의 표본은 먼저 인구 규모를 고려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로 12표본 혹은 6표본씩을 할당하였다. 할당된 지역은 지역 규모에 따라 성·연령별로 각각 1명 또는 2명씩 균등하게 할당하여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아래 표는 지역별 표본 구성 현황을 보여준다.

방언권	지역	표본할당
중부 방언 (48명)	서울	12
	인천	6
	대전	6
	충청	6
	경기	12
	강원	6
동남 방언 (42명)	부산	12
	대구	12
	울산	6
	경북	6
	경남	6
서남 방언 (24명)	광주	12
	전북	6
	전남	6
제주 방언 (6명)	제주	6
합계		120

6명 표집				
지역	10~20대	30~40대	50~60대	합계
남성	1	1	1	3
여성	1	1	1	3
합계	2	2	2	6

12명 표집				
지역	10~20대	30~40대	50~60대	합계
남성	2	2	2	6
여성	2	2	2	6
합계	4	4	4	12

5.3 조사 개선안 마련

사전조사를 통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발생 유형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서의 문제 상황 발생에 대비하였다.

조사의 특수한 성격 상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실제 설문 상황에서의 조사원칙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의 주요 발생 유형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발생 유형	해결 방안
단어 선택을 어려워하여 재차 읽거나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	- 면접원 교육 시, 평상시에 말하는대로 발음(조사원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도록 교육내용 강화 - 면접 시, 조사 목적 및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조사 실시 -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례 제시 및 교육 실시
관심 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	-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완이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체크하여 관심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에 재녹음 실시 -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에 관심항목 표시
조사를 혼동하여 잘 못 읽는 경우	- 관심 항목이 아닌 경우는 문제 없으나, 조사까지 관심항목에 포함된 경우에 대한 조사 지침 마련 -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에 관심항목 표시
문항 누락 사례 발생	-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완이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체크하여 관심항목을 잘 못 읽는 경우에 재녹음 실시 - 문번을 확인하면서 면접 실시할 수 있도록 응답자용 보기카드 제시하고, 면접원은 응답자용 보기카드를 함께 보면서 항목별로 발음항목 완료 여부를 체크
응답자의 집중도 하락 및 중도이탈	- 설문 상의 표현 방식 수정(난이도 수정) - 한 문장 안에 두 개 관심 항목을 포함시켜 전체 문항수 축소

6. 실사

6.1 실사 개요

본 조사는 크게 발음 조사와 의식 조사로 구분된다. 발음 조사는 발음 항목 보기카드를 제시한 후 응답자의 발음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의식 조사는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면접원이 타계식으로 응답 받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순서는 발음 조사 종료 후 의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발음 항목 수집에 선행하여 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 효과에 의해 응답자가 해당 항목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 경우 발음 항목 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6.2 면접원 교육 및 관리

사전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본 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치하였다. 표준 발음 정책과 본 조사의 목적에 대한 기본 교육, 일반 조사와 본 조사의 다른 점, 면접원용 발음 항목 가이드 및 조사 가이드 배포, 응답자용 항목 가이드 배포, 교육 시 다양한 발음 사례 제시 등 면접원 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 후에도 실사 진행 초기에는 수집된 발음 녹음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조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6.3 실사 진행

전체적인 조사 순서는 발음 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다음의 10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시작 전 면접원으로 하여금 녹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녹음 시작 전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 녹음 여부, 품질 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발음 항목을 녹취한다는 점에서 일반 면접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보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발음 및 의식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한 번 녹음 상태를 확인 하고, 조사 중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진행 순서]

1. 녹음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법	2. 녹음 장비 및 장소 확보	3. 조사 협조	4. 사전 안내 및 테스트 녹음	5. 테스트 녹음 품질 확인	6. 발음 항목 조사 (본녹음)	7. 의식 항목 조사	8. 녹음 상태 확인	9. 파일명 부여	10. 녹음 파일 전송

6.4 자료 검증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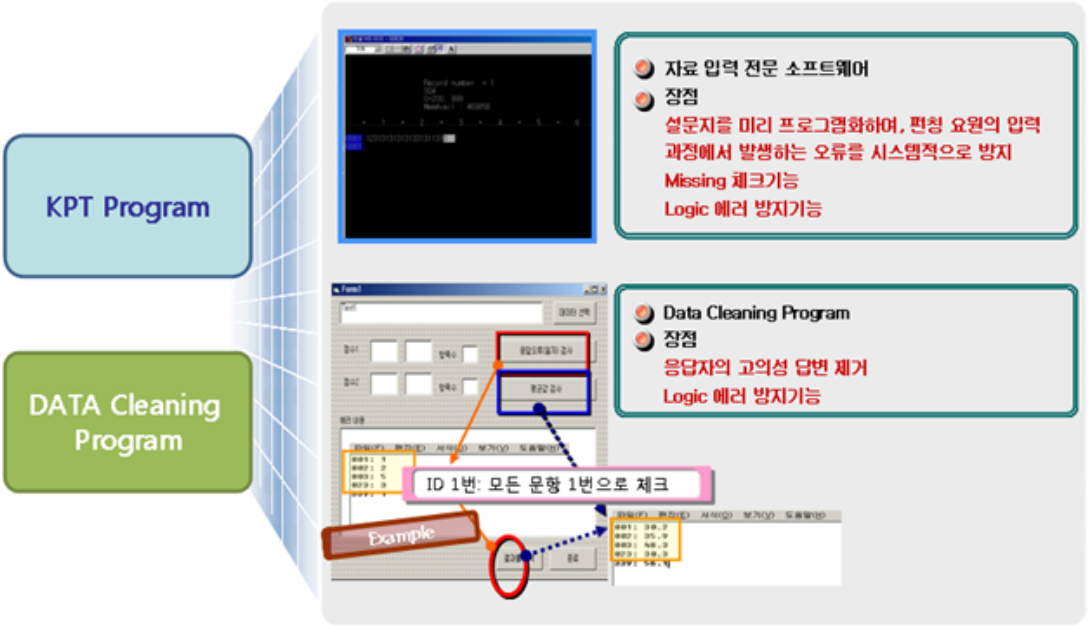
자료의 검증과 보완은 다음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로 발음 조사 완료 후 면접원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1차 체크함으로써 녹음 여부, 녹음 품질, 누락 항목 등 녹음 및 항목 수집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음 2단계로 면접원에 의해 수집된 녹음 파일을 각 지방 실사 사무소로 취합하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조사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들을 검증하였다.

3단계로는 각 지방 사무소의 2차 검증을 거친 녹음 파일을 본사에서 취합하여 3차 검증 및 보완 단계를 거쳤다. 마지막 4단계로 3차 검증 이후 정리된 녹음 파일을 전사자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7.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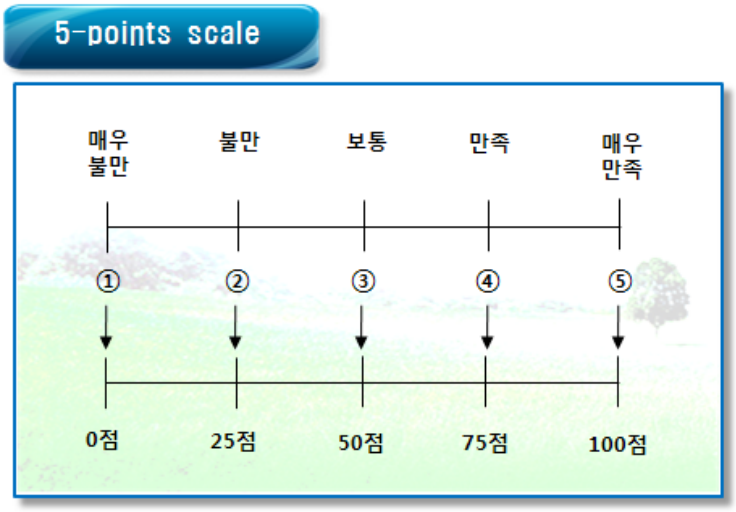
7.1 자료 입력 및 검증

수집된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로직 체크 기능을 장착한 본사 Punching Program을 통해 입력하였고,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 Logic에 맞지 않는 문항, 일관성 없는 문항 등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7.2 척도 (Scale) 제시

본 조사에서는 응답이 쉽고, 변별력이 높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7.3 표준 발음 일치율 산출 방법

개별 발음 항목의 표준 발음 일치율은 각 발음 항목별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표준 발음 일치율(항목)
> = 각 발음 항목별 표준 발음 비율

어문 현상별 표준 발음 일치율은 위에서 계산된 발음 항목별 표준 발음 일치율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다.[1]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표준 발음 일치율(현상)
> = $\frac{1}{n}\sum_{i=1}^{n} X_i,\ (i=1,\ \cdots, n)$,
> (n : 현상 내 항목 수, X_i: 현상 내 항목 준수율)
>
> ex) ㄴ,ㄹ 연쇄 현상 (세부 문항 : 한랭, 상견례, 공권력)
> 표준 발음 일치율(ㄴ,ㄹ 현상)=
> {표준 발음 일치율(한랭) + 표준 발음 일치율(상견례) + 표준 발음 일치율(공권력) } / 3

전체 표준 발음 일치율은 위에서 계산된 어문 현상별 표준 발음 일치율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표준 발음 일치율(전체)
> = $\frac{1}{N}\sum_{i=1}^{N} Y_i,\ (i=1,\ \cdots, n)$,
> (N : 어문 현상 개수, Y_i : 현상 일치율)

1) 단, 세부 문항 중 띄어읽어 발음한 비율이 다소 높았던 '핵연료' 항목, 복수표준발음이 인정되어 표준 발음 일치율이 100%에 가까운 밤새, 야금야금, 금융, 김밥은 현상 일치율 및 전체 일치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8.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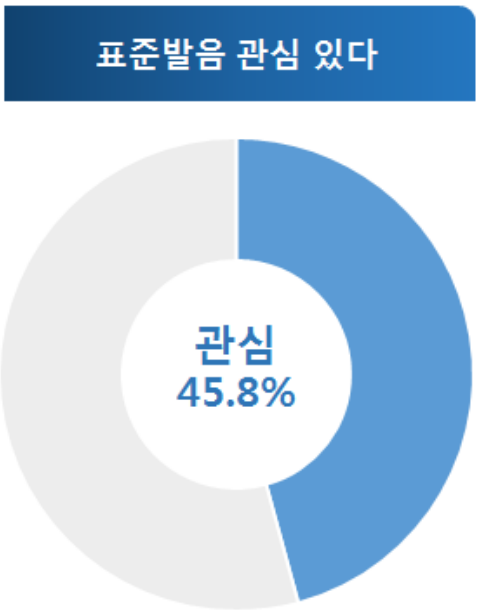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4)	50.7
	여성	(986)	49.3
연령별	15~19세	(161)	8.1
	20대	(342)	17.1
	30대	(386)	19.3
	40대	(439)	22.0
	50대	(417)	20.9
	60대이상	(255)	12.8
학력별	중졸이하	(80)	4.1
	고졸	(848)	42.4
	대졸(재학)	(1,012)	50.6
	대학원 이상(재학)	(60)	3.0
직업별	농업/수산업/축산업	(8)	0.4
	자영업	(350)	17.5
	판매/서비스직	(265)	13.3
	기능/숙련공	(98)	4.9
	일반 작업직	(36)	1.8
	사무/기술직	(428)	21.4
	경영/관리직	(14)	.7
	전문/자유직	(54)	2.7
	전업주부	(343)	17.2
	학생	(342)	17.1
	무직	(61)	3.1
	기타	(1)	0.1
표준 발음 관심도	관심있음	(916)	45.8
	보통	(781)	39.1
	관심없음	(303)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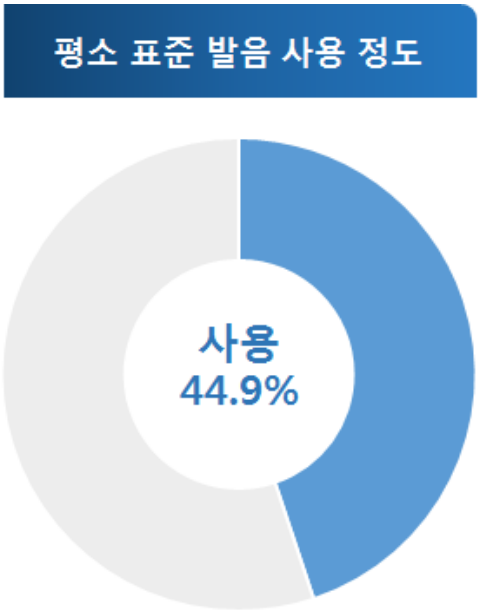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2,000)**	**100.0**
거주 지역	서울	(476)	23.8
	부산	(111)	5.6
	대구	(80)	4.0
	인천	(140)	7.0
	광주	(44)	2.2
	대전	(48)	2.4
	울산	(38)	1.9
	경기도	(585)	29.3
	강원도	(47)	2.4
	충청북도	(47)	2.4
	충청남도	(69)	3.5
	전라북도	(55)	2.8
	전라남도	(56)	2.8
	경상북도	(81)	4.1
	경상남도	(104)	5.2
	제주도	(19)	1.0
성장 지역	서울	(453)	22.7
	부산	(129)	6.5
	대구	(84)	4.2
	인천	(104)	5.2
	광주	(43)	2.2
	대전	(60)	3.0
	울산	(31)	1.6
	세종	(2)	0.1
	경기도	(326)	16.3
	강원도	(64)	3.2
	충청북도	(77)	3.9
	충청남도	(108)	5.4
	전라북도	(99)	5.0
	전라남도	(131)	6.6
	경상북도	(132)	6.6
	경상남도	(136)	6.8
	제주도	(20)	1.0
	기타	(1)	0.1
토박이 여부	수도권 토박이	(856)	42.8
	수도권 유입	(345)	17.3
	지방 토박이	(27)	1.4
	지방 유입	(772)	38.6
수도권 유입 경로	충청권 유입	(95)	27.5
	전라권 유입	(114)	33.0
	경상권 유입	(113)	32.8
	강원/제주 유입	(2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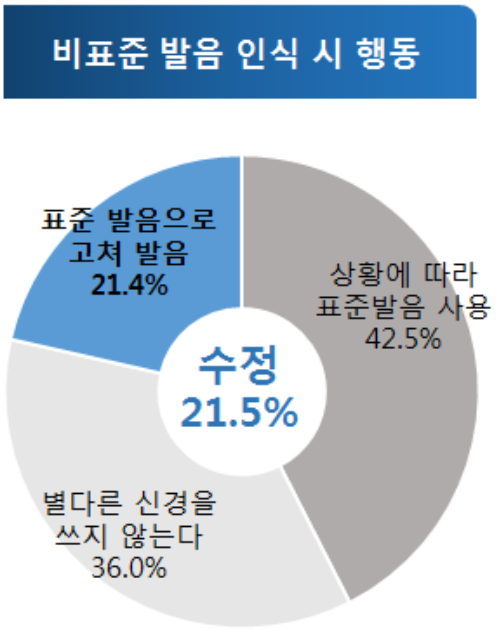
2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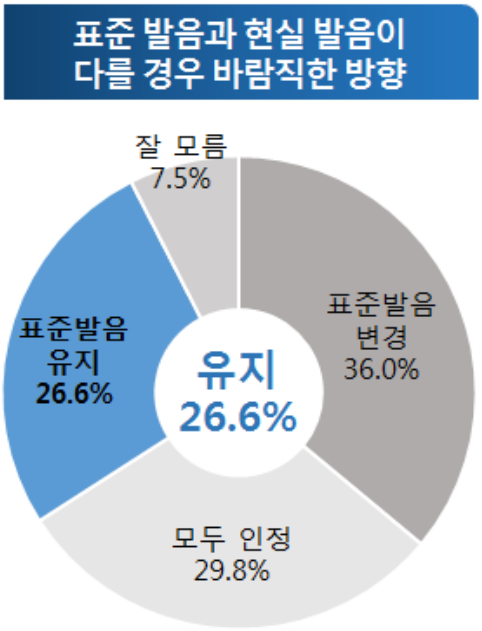
1 주요 조사 결과

1. 의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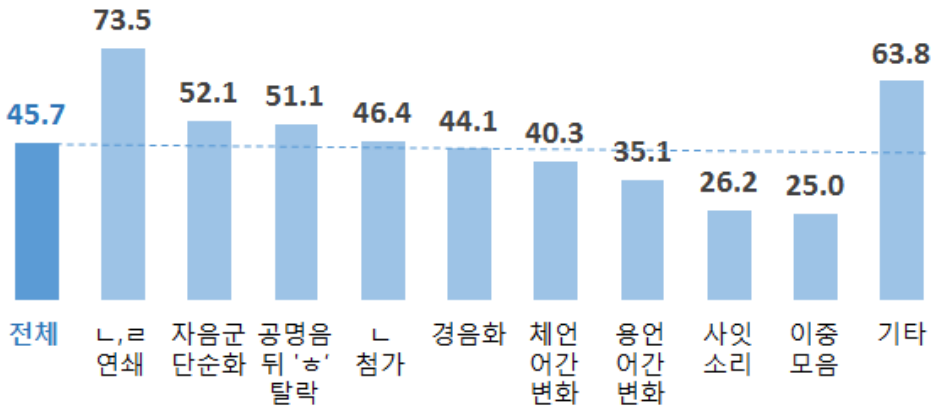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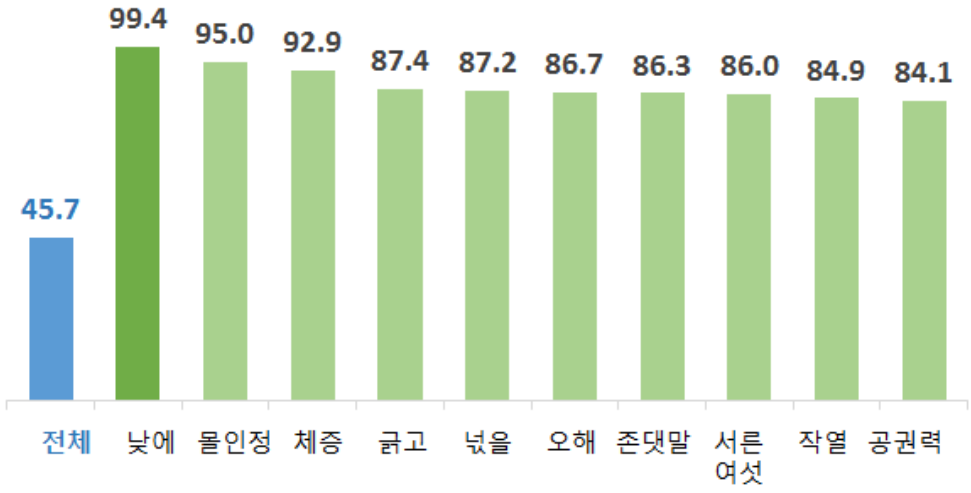


2. 발음 부문

표준 발음 일치율



상위 10개 항목



하위 10개 항목

2 조사 결과 요약

1. 의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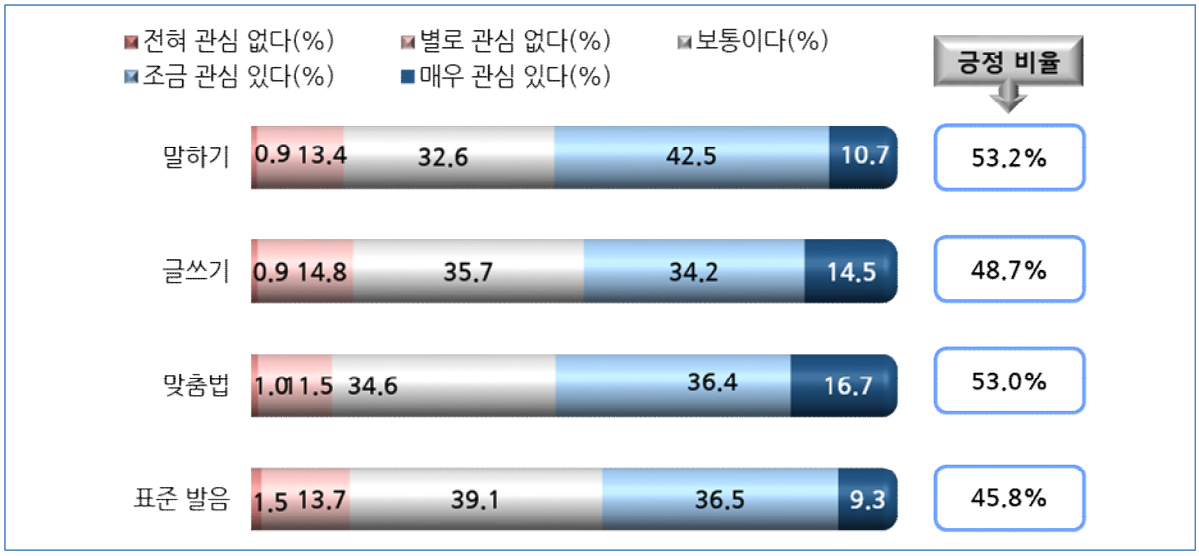
1.1 국어에 대한 관심도

1.1.1. 전체 결과

일반국민들의 국어에 대해 전반적으로 50% 전후에서 '관심 있다'(매우+조금)는 긍정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국어 관심도를 측정한 말하기, 글쓰기, 맞춤법, 표준발음 등 4개 영역 중에서 말하기와 맞춤법의 긍정응답이 53% 수준에서 가장 높고,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도는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45.8%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 발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항목과 같이 조사되는 표준어에 대한 7인식 결과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적극적 교정 노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와 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 국어에 대한 관심도



1.1.2. 인구특성별 분석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여성, 10대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 측면에서 20대까지 유지되던 높은 관심이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준발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지만, 국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20대 이하, 여성, 대졸 이상 계층에서도 말하기 등 타 영역보다 낮은 관심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표준발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표1. 국어에 대한 관심도 ◪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6	53.0	45.8
성별	남성	[1,014]	49.1	43.7	48.4	42.4
	여성	[986]	57.4	53.8	57.7	49.3
연령별	만15-19세	[161]	57.8	55.3	55.9	49.1
	20대	[342]	61.1	56.1	58.8	48.0
	30대	[386]	54.9	49.7	54.7	45.9
	40대	[439]	51.5	44.6	51.9	46.5
	50대	[417]	51.1	48.4	52.8	45.3
	60대	[255]	43.5	40.0	43.1	40.4
학력별	중졸이하	[80]	37.5	33.8	37.5	30.0
	고졸이하	[848]	46.5	41.6	45.6	40.3
	대졸이하	[1,012]	59.5	54.8	59.6	51.1
	대학원이상	[60]	63.3	63.3	66.7	55.0

1.1.3. 지역별 분석

국어에 대한 관심도를 지역별로 분석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전 영역에서 현재 전라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또는 수도권으로 유입된 전라권 거주자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준발음 일치율와 비교할 때는 의미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표2. 국어에 대한 관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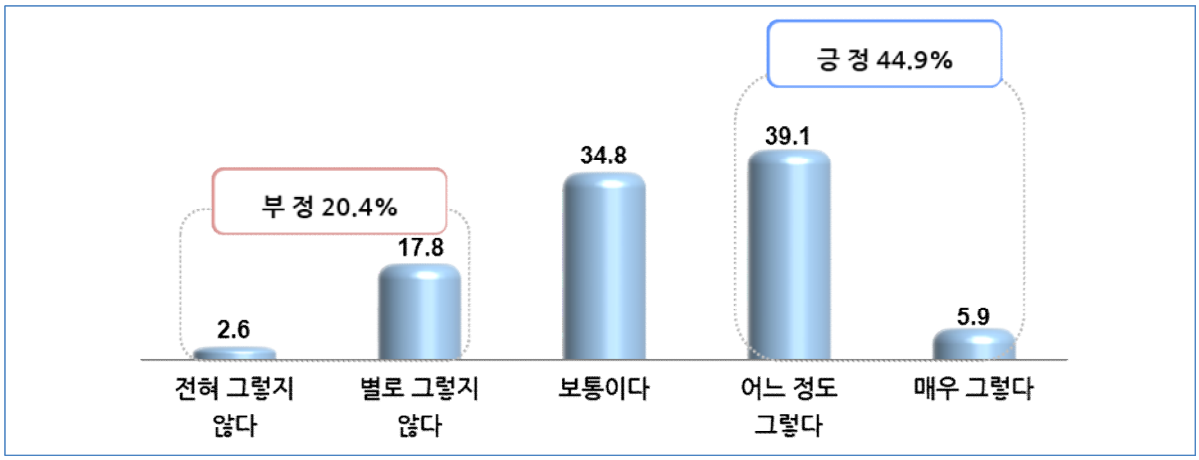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맞춤법	표준발음
[전 체]		[2,000]	53.2	48.7	53.0	45.8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54.8	47.0	54.5	48.5
	충청권(거주)	[164]	51.8	47.0	42.1	42.1
	전라권(거주)	[155]	56.8	60.6	63.9	49.7
	경상권(거주)	[414]	52.2	52.2	51.7	40.3
	강원/제주(거주)	[66]	25.8	33.3	36.4	31.8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55.3	46.7	53.3	48.4
	충청권(성장)	[247]	54.7	45.3	47.8	45.3
	전라권(성장)	[273]	56.0	59.0	62.6	54.2
	경상권(성장)	[512]	51.6	51.0	53.1	39.6
	강원/제주(성장)	[85]	28.2	31.8	32.9	30.6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55.0	46.1	53.3	48.1
	수도권 유입	[345]	54.2	49.0	57.4	49.3
	지방토박이	[772]	50.4	50.8	50.6	41.3
	지방유입	[27]	63.0	63.0	55.6	55.6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60.0	44.2	57.9	52.6
	전라권유입	[114]	57.9	57.9	63.2	60.5
	경상권유입	[113]	50.4	47.8	56.6	39.8
	강원/제주유입	[23]	30.4	30.4	30.4	26.1

1.2 표준발음 사용 정도

1.2.1. 전체 결과

본인이 표준발음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44.9%가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어느 정도+매우 그렇다)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0.4%로 긍정 평가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그림2 : 표준발음 사용 정도 ◪



1.2.2. 인구특성별 분석

표준발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44.9%이며, 긍정응답에 대해 계층별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이하 저학력 계층에서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표준발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여성, 20대 이하에서는 표준발음 사용 정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사용 정도로 연결되는 강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평가		
								부정	보통	긍정
[전 체]		[2,000]	2.6	17.8	34.8	39.0	5.8	20.4	34.8	44.9
성별	남성	[1,014]	2.7	18.4	34.5	39.3	5.0	21.1	34.5	44.4
	여성	[986]	2.4	17.1	35.0	38.7	6.7	19.6	35.0	45.4
연령별	만15-19세	[161]	0.6	14.3	38.5	37.9	8.7	14.9	38.5	46.6
	20대	[342]	1.8	14.0	33.9	43.6	6.7	15.8	33.9	50.3
	30대	[386]	1.8	16.3	33.4	42.5	6.0	18.1	33.4	48.4
	40대	[439]	2.5	17.8	32.6	41.7	5.5	20.3	32.6	47.2
	50대	[417]	2.9	20.9	36.9	34.1	5.3	23.7	36.9	39.3
	60대	[255]	5.5	22.4	35.7	32.2	4.3	27.8	35.7	36.5
학력별	중졸이하	[80]	7.5	20.0	38.8	31.2	2.5	27.5	38.8	33.8
	고졸이하	[848]	3.5	21.5	37.1	32.9	5.0	25.0	37.1	37.9
	대졸이하	[1,012]	1.5	14.8	32.1	44.9	6.7	16.3	32.1	51.6
	대학원이상	[60]	0.0	13.3	40.0	38.3	8.3	13.3	40.0	46.7

1.2.3. 지역별 분석

본인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본인의 발음을 표준어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경향으로는 전라권에서 자란 후 수도권으로 유입된 계층에서도 50.1%로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나 타 지역 계층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4. 표준 발음 사용 정도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평가		
								부정	보통	긍정
[전 체]		**[2,000]**	**2.6**	**17.8**	**34.8**	**39.1**	**5.9**	**20.4**	**34.8**	**44.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0.3	12.7	30.8	47.1	9.0	13.1	30.8	**56.1**
	충청권(거주)	[164]	0.0	7.9	54.3	36.0	1.8	7.9	54.3	37.8
	전라권(거주)	[155]	3.2	21.3	34.2	40.0	1.3	24.5	34.2	41.3
	경상권(거주)	[414]	9.4	32.4	37.4	20.0	0.7	41.8	37.4	20.8
	강원/제주(거주)	[66]	4.5	34.8	42.4	16.7	1.5	39.4	42.4	18.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0.1	9.9	28.8	50.7	10.5	10.0	28.8	**61.3**
	충청권(성장)	[247]	0.4	11.3	48.2	37.2	2.8	11.7	48.2	40.1
	전라권(성장)	[273]	1.8	17.6	35.5	41.0	4.0	19.4	35.5	45.1
	경상권(성장)	[512]	8.0	32.2	37.1	21.5	1.2	40.2	37.1	22.7
	강원/제주(성장)	[85]	3.5	32.9	41.2	22.4	0.0	36.5	41.2	22.4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0.0	10.0	28.4	50.9	10.6	10.0	28.4	**61.6**
	수도권 유입	[345]	1.2	19.4	36.8	37.7	4.9	20.6	36.8	42.6
	지방토박이	[772]	6.0	26.2	40.7	26.3	0.9	32.1	40.7	27.2
	지방유입	[27]	3.7	3.7	40.7	44.4	7.4	7.4	40.7	51.9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1.1	14.7	40.0	40.0	4.2	15.8	40.0	44.2
	전라권유입	[114]	0.0	14.0	36.0	42.1	7.9	14.0	36.0	**50.0**
	경상권유입	[113]	2.7	29.2	33.6	31.0	3.5	31.9	33.6	34.5
	강원/제주유입	[23]	0.0	17.4	43.5	39.1	0.0	17.4	43.5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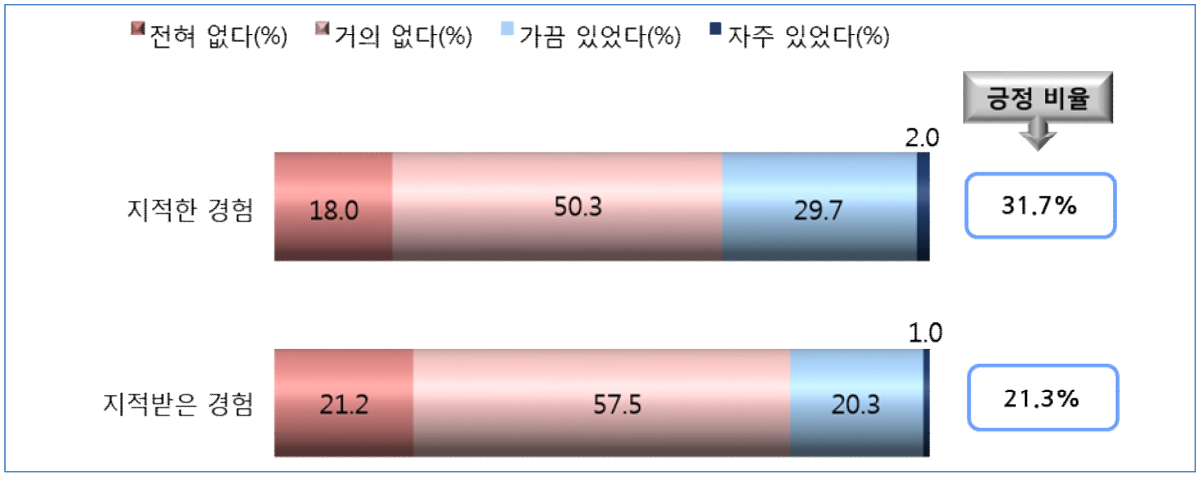
1.3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1.3.1. 전체 결과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평소 생활에서 비표준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지적받는 경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비표준 발음을 지적하거나 지적받는 경험을 확인한 결과, 지적한 경험은 31.7%, 지적 받은 경험은 21.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 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45% 수준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가 서로의 발음을 지적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1.3.2. 인구특성별 분석

비표준 발음에 대해 지적한 경험은 20대 이하, 대졸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 국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계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 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적경험에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5.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구분		사례수	지적한 경험	지적받은 경험
[전 체]		[2,000]	31.7	21.3
성별	남성	[1,014]	31.7	21.0
	여성	[986]	31.7	21.6
연령별	만15-19세	[161]	34.2	22.4
	20대	[342]	37.4	22.5
	30대	[386]	30.6	19.4
	40대	[439]	27.1	19.1
	50대	[417]	33.3	24.9
	60대	[255]	29.4	19.6
학력별	중졸이하	[80]	26.2	18.8
	고졸이하	[848]	27.9	22.4
	대졸이하	[1,012]	35.2	21.1
	대학원이상	[60]	33.3	11.7

1.3.3. 지역별 분석

지역별 분석에서는 지적한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는 반면, 지적받은 경험은 경상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경상권에서 성장한 후 수도권으로 유입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6. 비표준 발음 관련 지적 경험 ◪

구분		사례수	지적한 경험	지적받은 경험
[전 체]		[2,000]	31.7	21.3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32.1	20.3
	충청권(거주)	[164]	27.4	17.1
	전라권(거주)	[155]	30.3	23.2
	경상권(거주)	[414]	33.3	26.6
	강원/제주(거주)	[66]	28.8	12.1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30.4	16.2
	충청권(성장)	[247]	30.8	21.9
	전라권(성장)	[273]	34.1	23.1
	경상권(성장)	[512]	33.8	29.9
	강원/제주(성장)	[85]	28.2	15.3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30.3	16.2
	수도권 유입	[345]	36.5	30.4
	지방토박이	[772]	31.1	23.1
	지방유입	[27]	33.3	14.8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36.8	28.4
	전라권유입	[114]	37.7	23.7
	경상권유입	[113]	37.2	41.6
	강원/제주유입	[23]	26.1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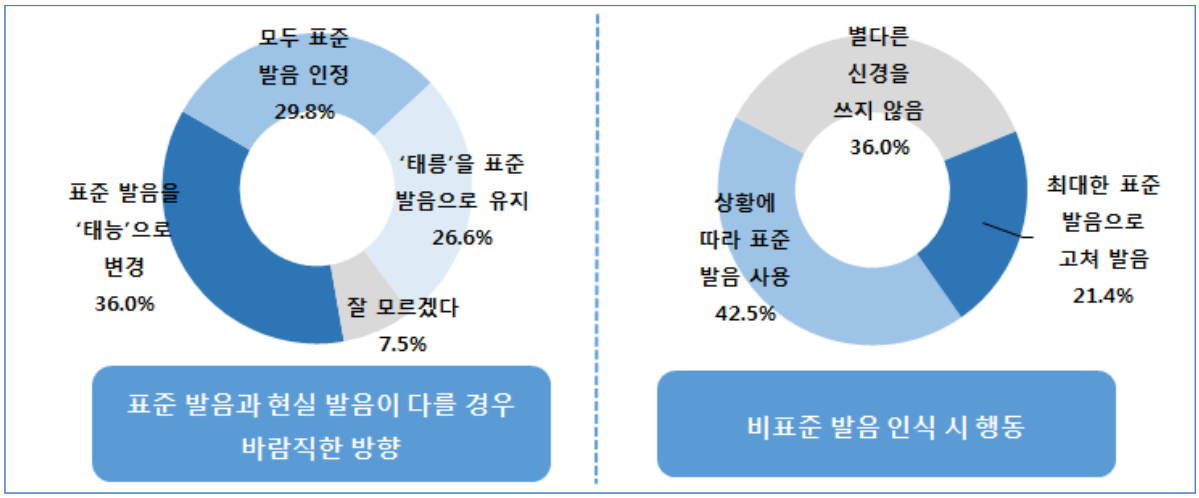
1.4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1.4.1. 전체 결과

비표준 발음과 관련된 태도에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최대한 표준어로 고쳐서 사용한다' 는 응답은 21.5%에 그친 반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는 응답은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표준발음을 사용한다' 는 유보적인 입장 또한 4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표준발음은 '태릉' 이지만, 현실발음은 '태능' 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29.9%)거나 '태능으로 표준발음을 변경해야 한다' (36.1%)는 응답이 '태릉' 을 표준발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림4 : 비표준 발음관련 태도 ◪



1.4.2. 인구특성별 분석

본인의 발음이 비표준 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성, 20-30대, 대졸이상 계층에서 표준발음으로 고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표준발음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의 계층 특성이 20대 이하,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준발음으로 고치려는 노력은 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동일한 계층특성을 보이는 반면, 표준발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현실적인 수정 노력과 표준어 정책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7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

구분		사례수	비표준 발음 인식 시 행동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 사용	별다른 신경 쓰지않음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	표준발음 변경	모두 표준발음 인정	표준발음 유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42.5	36.0	21.4	36.0	29.8	26.6	7.5
성별	남성	[1,014]	42.5	39.4	18.0	35.8	30.8	26.2	7.2
	여성	[986]	42.5	32.6	**24.9**	36.3	28.9	27.0	7.8
연령별	만15-19세	[161]	39.8	38.5	21.7	24.2	35.4	**32.9**	7.5
	20대	[342]	44.4	30.4	**25.1**	28.4	32.7	**33.0**	5.8
	30대	[386]	43.5	31.9	**24.6**	38.6	30.3	24.4	6.7
	40대	[439]	44.9	35.5	19.6	35.8	32.1	24.8	7.3
	50대	[417]	42.9	38.4	18.7	43.4	22.8	25.4	8.4
	60대	[255]	35.3	**45.5**	19.2	38.4	29.4	22.4	9.8
학력별	중졸이하	[80]	30.0	**57.5**	12.5	28.8	25.0	**31.2**	15.0
	고졸이하	[848]	43.8	38.3	17.9	39.4	27.2	25.2	8.1
	대졸이하	[1,012]	41.9	33.3	**24.8**	33.8	**32.0**	27.7	6.5
	대학원이상	[60]	**51.7**	21.7	**26.7**	36.7	**36.7**	21.7	5.0

1.4.3. 지역별 분석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이외에 전라권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계층, 전라권에서 성장한 후 수도권에 유입된 계층에서 '표준발음으로 고쳐 발음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전라권의 특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반면 표준발음 유지와 관련해서는 경상권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8 비표준 발음 관련 태도 ◪

구분		사례수	비표준 발음 인식 시 행동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경우			
			상황에 따라 표준 발음 사용	별다른 신경 쓰지않음	표준 발음으로 고쳐 발음	표준발음 변경	모두 표준발음 인정	표준발음 유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42.5	36.0	21.4	36.0	29.8	26.6	7.5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3.0	31.2	**25.7**	39.3	29.1	24.2	7.3
	충청권(거주)	[164]	60.4	29.3	10.4	37.8	32.9	22.0	7.3
	전라권(거주)	[155]	45.2	31.6	**23.2**	20.6	47.7	27.1	4.5
	경상권(거주)	[414]	36.0	50.2	13.8	32.1	24.4	**36.5**	7.0
	강원/제주(거주)	[66]	22.7	62.1	15.2	33.3	27.3	18.2	21.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1.6	31.5	**27.0**	37.6	29.6	25.3	7.6
	충청권(성장)	[247]	55.1	28.7	16.2	40.5	30.4	22.3	6.9
	전라권(성장)	[273]	46.5	27.8	**25.6**	31.5	38.8	26.0	3.7
	경상권(성장)	[512]	37.9	48.2	13.9	33.6	26.6	**32.0**	7.8
	강원/제주(성장)	[85]	30.6	57.6	11.8	36.5	22.4	22.4	18.8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1.5	31.4	**27.1**	38.3	29.6	24.6	7.5
	수도권 유입	[345]	47.0	30.7	22.3	41.7	28.1	23.2	7.0
	지방토박이	[772]	41.6	43.7	14.8	31.7	31.0	29.7	7.6
	지방유입	[27]	44.4	33.3	22.2	14.8	29.6	44.4	11.1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7.4	26.3	**26.3**	44.2	26.3	22.1	7.4
	전라권유입	[114]	50.9	21.1	**28.1**	45.6	26.3	25.4	2.6
	경상권유입	[113]	45.1	39.8	15.0	35.4	34.5	19.5	10.6
	강원/제주유입	[23]	34.8	52.2	13.0	43.5	13.0	**34.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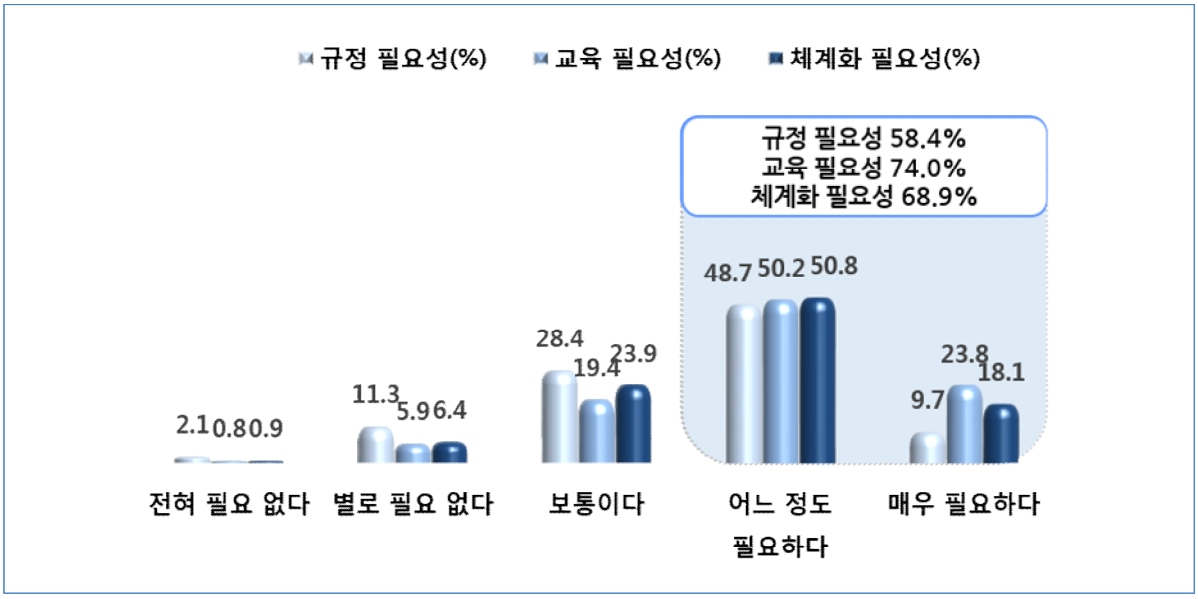
1.5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1.5.1. 전체 결과

표준어와 관련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으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0%,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9%로 나타난 반면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정이나 체계화 필요성보다는 교육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표준 발음 관련 경험에서 일반적인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때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적인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어 관련 정책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기존 표준에 대한 수용 또는 인정과는 다른 태도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림5 :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1.5.2. 인구특성별 분석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서는 여성, 대학원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표준어 관련 규정 필요성이나 교육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가 확인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 표9.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구분		사례수	규정 필요성	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전 체]		[2,000]	58.4	74.0	68.9
성별	남성	[1,014]	55.5	71.8	66.4
	여성	[986]	**61.3**	**76.3**	**71.5**
연령별	만15-19세	[161]	56.5	69.6	60.9
	20대	[342]	57.6	72.8	66.1
	30대	[386]	59.1	72.3	67.4
	40대	[439]	58.8	73.8	69.5
	50대	[417]	57.1	77.7	74.1
	60대	[255]	60.8	75.3	70.6
학력별	중졸이하	[80]	52.5	76.2	68.8
	고졸이하	[848]	55.3	72.6	68.4
	대졸이하	[1,012]	60.8	74.2	69.3
	대학원이상	[60]	**68.3**	**86.7**	70.0

1.5.3. 지역별 분석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성장한 계층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할 때 수도권 유입계층, 특히 전라권에서 유입된 계층에서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가 확인되고 있다.

◩ 표10.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구분		사례수	규정 필요성	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전 체]		[2,000]	58.4	74.0	68.9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63.6**	78.7	**75.0**
	충청권(거주)	[164]	45.7	51.8	44.5
	전라권(거주)	[155]	56.8	63.9	59.4
	경상권(거주)	[414]	52.2	76.1	66.9
	강원/제주(거주)	[66]	36.4	54.5	53.0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63.2**	77.8	73.5
	충청권(성장)	[247]	50.6	61.1	56.7
	전라권(성장)	[273]	61.9	74.7	**70.3**
	경상권(성장)	[512]	54.5	76.0	67.4
	강원/제주(성장)	[85]	42.4	57.6	61.2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63.4**	**78.0**	**73.6**
	수도권 유입	[345]	**64.1**	**80.3**	**78.6**
	지방토박이	[772]	50.3	66.8	59.3
	지방유입	[27]	55.6	70.4	70.4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58.9	74.7	75.8
	전라권유입	[114]	**73.7**	**89.5**	**87.7**
	경상권유입	[113]	60.2	77.0	69.9
	강원/제주유입	[23]	56.5	73.9	**87.0**

2. 발음 부문

2.1 “예” 의 발음

◩ 표11. “ㅖ” 발음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노예	노예	노예	67.4	67.7	*	
차례	차례	차레	97.7	96.7		*
비례	비례	비레	81.4	79.3		*
실례	실례	실레	79.7	78.4		*
결례	결례	결레	78.9	75.7		*
장례	장녜	장네	78.4	75.9		*
용례	용녜	용네	74.5	70.4		*

◈ **표준발음법 관련 항목**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ㅟ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볼 때 ‘노예’의 [ㅖ]는 표준발음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례’는 [ㅖ]가 70% 이상으로 우세하다. ‘예’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례’의 발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발음법에서 ‘ㅖ’를 ‘ㅔ’로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계, 녜, 뎨, 몌, 볘, 셰, 졔, 쳬, 켸, 톄, 폐, 혜’이다. ‘예’는 문제가 없으나, ‘례’와 다른 예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어규정>의 ‘해설’에 의하면 실제의 발음을 고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례’를 [레]로 발음하는 빈도가 압도적임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이 조항이 표기형의 ‘장례, 용례’ 등에 대한 조항이라면 [례]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이지만, 치조비음화가 적용된 [녜]에 이 항목이 적용된다면 ‘ㅖ’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현식(1999)과 배주채(2003), 차재은(2003)에서는 ‘례’도 [레]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외래어 ‘세퍼드’를 [세퍼드]로 발음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세’를 원래대로 발음하도록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선철 2004).[2)]

2) 김선철(2004), 표준어 규범과 현실－②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 연구』, 태학사.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차재은(2003),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 언어와 국어 연구』, 월인, 1~47.

2.2 'ㄴㄹ' 연쇄의 발음

◩ 표12. "ㄴㄹ" 연쇄 발음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한랭	할랭	할랭/한냉	52.3/46.3	50.4/48.5			*
상견례	상견녜	상견녜	83.8	84.7	*		
공권력	공꿘녁	공꿘녁	84.1	83.8	*		

◈ **표준발음법 관련 항목**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상견례, 공권력' 처럼 한자어 중 '2음절 단어+1음절 한자어' 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현행 표준발음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2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한랭' 의 경우, [할랭]과 [한냉]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랭' 과 동일한 구성인 '온랭' 의 발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준발음은 [올랭]이지만 [온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할랭]과 [한냉], [올랭]과 [온냉]을 모두 복수의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ㄴㄹ' 연쇄에서 [ㄴㄴ] 발음을 인정하면, '혼령[홀령], 전령[절령], 혼례[홀례], 관례[괄례]' 등 많은 단어의 표준 발음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去冷(거냉)' 의 예와 같이 '한냉, 온냉' 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랭, 온랭' 의 표기와 발음이 문제될 것이다.

'冷' 의 발음과 관련하여 '고랭지' 는 세대에 따른 발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70% 이상이 [고랭지]로 발음하는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고랭지] 발음은 6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해당 단어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표준발음을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冷' 의 한자음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고랭지	고랭지	고랭지	63.0/34.8	62.7/34.9	*		*

2.3 'ㄴ' 첨가

◩ 표13. "ㄴ" 첨가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 ≒비표준
금융	금늉/그뮹	그뮹/금늉	58.0/41.8	68.9/30.7	*		
야금야금	야금냐금/야그먀금	야금냐금	92.5%	91.9%	*		
작열	장녈	장녈	84.8	84.8	*		
낯익-	난닉-	난닉/나딕	41.9/45.1	48.7/38.2	*		*
서른여섯	서른녀섣	서른녀섣	85.8%	86.1%	*		
생이별	생니별	생이별	89.4%	89.8%		*	
몰인정	모린정	모린정	94.5	95.0	*		
선율	서뉼	선뉼	76.1	72.0		*	
강약	강약	강냑	72.2	69.8		*	
핵연료	행녈료	해결료	39.7	41.9		*	띄어읽기 제외
좋군요	조쿠뇨	조쿤뇨	81.2%	81.1%		*	
나는야	나느냐	나는냐	69.8%	68.5%		*	

◈ 표준발음법 관련 항목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금융'은 표준 발음이 [금늉]과 [그뮹] 모두를 허용하고 있고 전국적인 발음이나 수도권의 발음도 유사하므로 [금늉]을 굳이 표준발음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의 발음 표기에서 원칙을 따르는 [금늉]을 먼저 제시할지, 아니면 [그뮹]을 먼저 제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작열'도 표준 발음 [장녈]의 분포가 우세하므로 문제가 없다. '서른여섯'도 표준 발음 [서른녀섣]이 우세하므로 문제가 없다.

'야금야금'은 [야금냐금]과 [야그먀금]이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발음 이나 수도권의 발음은 거의 [야금냐금]의 'ㄴ' 첨가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야그먀금]을 표준발음에서 제외하는 안과 현재처럼 복수표준발음을 유지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실 발음을 최대한 반영할 목적이라면 [야그먀금]을 표준발음에서 제외해야 하고, 최소한의 수정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복수표준발음을 유지할 수도 있다.

'낯익-'은 표준 발음인 [난닉]과 비표준발음은 [나딕]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딕]의 경우는 '경상권(거주지)', '경상권(성장지)', 경상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 된 계층의 발음 실현 양상으로 볼 때 경상권 방언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수준에서는 굳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나딕]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난닉]을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생이별’의 표준발음은 [생니별]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발음이나 수도권 발음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은 [생이별]이 90%에 육박한다. 그리고 ‘생이별’과 동일하게 ‘1음절 접두사+2음절 단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몰인정’의 표준 발음도 [모린정]이므로 [생이별]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음 실현 상황으로만 본다면, [생이별]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발음을 굳이 바꾸지 않고 [생니별]과 [생이별]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다.

‘선율’과 ‘강약’은 표준 발음이 각각 [서뉼]과 [강약]이지만 [선뉼]과 [강냑]이 전국과 수도권에서 70% 이상 실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서뉼]과 [선뉼], [강약]과 [강냑]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강약’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가 [강약]으로 되어 있다.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라는 규정을 따를 때도 수정에 문제가 없다. 이는 ‘강’과 ‘약’이 국어에서 하나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핵연료’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띄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띄어서 읽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봤을 때, [해결료]가 표준 발음 [행녈료]보다 많이 실현된다. 전국 단위에서는 [행녈료]:[해결료]의 비율이 18.8% : 39.7%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는 16.7% : 41.9%로 나타난다. 현실 발음과 기존의 표준발음을 모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좋군요’와 ‘나는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발음 정보가 실릴 수 없다. 발음 조사 결과를 보면, [조쿤뇨]는 80% 가량 실현되며 [나는냐]는 70% 가량 실현된다. 이 현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표준발음법> 29항의 ‘해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이오?’(이것은 책이오?)를 줄여서 ‘-요?’라고 할 경우에는 ‘ㄴ’이나 ‘ㄹ’의 첨가 없이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문-요?[무뇨]담-요?[다묘]물-요?[무료]상-요?[상요]*

이 경우 형태상으로는 ‘좋군요’의 ‘요’와 동일하지만 ‘-이오?’가 줄어서 된 말에 한정된 것이므로 [조쿠뇨]로 발음하라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발음법> 1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로는 용언어간 뒤나 체언 뒤의 경우에 해당한다. 어미 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현재의 내용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결국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ㄴ' 첨가를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어가 아니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발음 경향으로는 'ㄴ' 첨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4 사이시옷

◩ 표14. 사이시옷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김밥	김빱/김밥	김빱	96.1	96.5	*		
장맛비	장마삐/장맏삐	장마삐	80.3	80.8	*		
밤새	밤쌔/밤새	밤새	96.7	97.4	*		
안간힘	안깐힘	안간힘	93.4	92.7		*	
인기척	인끼척	인기척	66.1	67.4		*	*
존댓말	존댄말	존댄말	86.3	91.5	*		
인사말	인사말	인산말	84.3	87.7		*	
반대말	반대말	반댄말	87.0	90.5		*	
편지글	편지글	편지끌	74.9	75.1		*	
머리글	머리글	머리끌	94.9	95.8		*	
수놈	수놈	순놈	96.5	96.4		*	
뱃멀미	밴멀미	배멀미	83.3	82.6		*	
해님	해님	핸님	95.4	96.2		*	
체증	체증	체증	92.9	91.5	*		
교과서	교과서	교꽈서	68.9	73.6		*	
효과	효과	효꽈	93.9	93.9		*	
불법	불법	불뻡	94.9	94.5		*	
창고	창고	창고/창꼬	52.0/47.9	42.0/58.0			*
고가도로	고가도로	고까도로	61.9	64.9		*	*
물질적	물찔쩍	물찔적/물찔쩍	41.6/57.9	39.8/59.7	*		*
길짐승	길찜승	길찜승/길짐승	50.9/48.2	55.5/43.4	*		*
날짐승	날찜승	날찜승/날짐승	62.1/37.8	64.5/35.2	*		*
찜닭	미등재어	찜딱/찜닥	54.9/45.0	40.1/59.7			
가로수 길	미등재어	가로수낄	80.9%	83.8%			
둘레 길	미등재어	둘레낄	92.4%	93.1%			
장사 일	미등재어	장사일	66.4%	66.4%			
빨래 바구니	미등재어	빨래바구니/빨래빠구니	47.5/50.0	46.7/50.6			
새우살	미등재어	새우살/새우쌀	54.6/43.2	53.8/44.1			

◈ **표준발음법 관련 항목**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문제는 표준어 자체에 사이시옷이 있는지 판단의 여부이다. ‘김밥’은 [김밥]과 [김빱]이 2016년 10월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되었다. 어떻게 발음하든 표기에는 상관이 없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 이상이 [김빱]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의 발음 정보 제시 순에서 [김빱]을 우선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장맛비’는 현재의 표준발음 ‘[장마삐]/[장맏삐]’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전체의 80% 이상이 [장마삐]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새’는 ‘밤사이’의 준말로 2015년에 [밤싸이], [밤사이], [밤쌔], [밤새]가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경우는 표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단, 수도권에서 96% 이상 [밤새]로 발음한다는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발음의 제시 순서를 [밤새]/[밤쌔]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간힘’과 ‘인기척’은 표준발음에 의하면 [안깐힘]과 [인끼척]으로 둘 다 된소리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발음 현황을 보면 [안간힘]이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기척] 역시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65% 이상의 실현 비율을 보인다. 두 어형 모두 형태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안간힘’의 발음에 대한 가나다 질문에 대해 ‘안간힘’은 ‘안’과 ‘간힘(숨 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고통을 견디려고 애쓰는 힘)이 결합한 합성어로 ‘간’이 된소리로 실현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안간힘’의 어원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뜻을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을 뜻하는 ‘안’으로 보입니다.”와 같은 답변도 있다. 이 경우 굳이 근거가 없는 [안깐힘] 하나만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해도 표기에는 변화가 없다. ‘인기척’의 경우는 [인기척]의 발음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서의 높은 실현 비율로 판단하건대 [인기척]과 [인끼척]이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존댓말’은 현재의 표준발음과 표기를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동일한 구성이면서 뒤의 요소가 ‘말, 글’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표준 발음은 문제가 된다.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의 표준발음은 각각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로 되어 있지만 [인산말], [반댄말], [편지끌], [머리끌]의 발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사말]은 ‘존댓말’의 예를 따라 ‘인삿말’로 표기를 바꾸고 표준발음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말’ 역시 그렇다. 표준발음과 표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학생 계층의 경우에도 [인산말], [반댄말]’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글’과 ‘머리글’ 역시 ‘편짓글’과 ‘머릿글’로 표기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머리말’의 표기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머릿말’로 쓰이던 것을 ‘머리말’로 바꾸었는데 다시 ‘머릿말’로 바꿀 경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약 30년 전 결정된 정책을 현재의 정책을 수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 머리말’을 ‘존댓말’과 동일하게 ‘인삿말, 반댓말, 편짓글, 머릿글, 머릿말’로 표기를 바꾸는 방법과 ‘존댓말’ 이외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발음과 반대되는 발음을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한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존댓말’과 ‘존대말’, ‘인사말’과 ‘인삿말’ 등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의 변화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표기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표준 발음을 복수로 하거나 수정하였을 때 표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 난에 표준 발음 이외의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두는 방법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되 ‘표준 인정 발음’으로 문제가 되는 발음들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다른 표준 발음도 그대로 두고 표기도 바꾸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발음도 비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님’은 [핸님]이 전체적으로 95% 이상의 발음 실현을 보이며, 계층적 특성에 의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여 표준발음을 [핸님]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햇님’에 대해 ‘해님’으로 ‘→’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는 특수한 처리를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릿말’ 등 다른 경우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말’로 가서 해당 단어를 확인할 길도 없다. 이 경우도 ‘ㅅ’ 표기로 바꾸거나 ‘표준 인정 발음’을 추가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수놈’은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5% 이상 압도적으로 [순놈]으로 발음하고 있다. ‘수놈’에 대해서는 아래 인용문에서도 표준어 ‘숫놈’과 발음 [순놈]의 정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표준어를 배우면서 억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써 국어에 대한 애착심에 손상을 입힌다면 표준어를 정리하는 정신에 어긋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종래에는 표준어나 맞춤법에서 그런 억지가 없지 않았다. '좋읍니다'의 '-읍니다'도 그 하나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습니다' 하나로 통일하였다. 마찬가지로 '암놈, 수놈'의 '수놈'도 비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억지스러움을 느끼게 하던 것이어서 국어연구소 안(案) 대까지 '숫놈'으로 고쳤었다. 그런데 문교부의 최종안에서 다시 '수놈'으로 환원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숫놈'은 어원적으로 '숳놈'일 것이다. '수탉, 수캐'도 어원적으로 '숳닭, 숳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받침에 'ㅎ'을 살려 쓰는 것이 번잡스럽게 느껴져 '수탉, 수캐'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받침 'ㅎ'은 발음상으로는 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숳놈'의 경우에도 발음은 '순놈'이어서 받침 'ㅎ'이 분명히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그런데 'ㅎ'은 '수캐'에서도 쓰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한 대안(代案)으로 등장한 것이 '숫놈'이었다. 그것을 '수놈'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형태를 억지로 표준어로 삼은 또 한번의 우(愚)임이 분명하다.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988. 여름호.)

'수/숫'과 관련한 표준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수-꿩	수-퀑/숫-꿩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수-캉아지	숫-강아지
수-캐	숫-개
수-컷	숫-것
수-키와	숫-기와
수-탉	숫-닭
수-탕나귀	숫-당나귀
수-톨쩌귀	숫-돌쩌귀
수-퇘지	숫-돼지
수-평아리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그러나 표준어 규정의 해설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다만1]과 [다만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두사의 기본형을 '수-'로 잡은 것이다. 여기 제시된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술' 등은 모두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놈,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렇게 발음되는지, 아니면 '숫놈,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숫쥐, 숫양'은 '수쥐, 수양'이 아니면서 '수놈, 수소'는 '숫놈,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한다.*

'수놈'은 '숫양, 숫염소, 수쥐'와 함께 '숫놈'으로 바꾸어서 '수/숫'의 발음과 표기를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규정>에 예시된 '수꿩, 수나사,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에 대해서도 각각 '숫꿩, 숫나사, 숫사돈, 숫소, 수은행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처럼 두 번째 요소가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은 표기를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단, ‘수퇘지, 수평아리’의 경우는 ‘숫돼지, 숫병아리’의 발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표준어를 ‘숫’으로 바꾸어 표기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수놈’ 등으로 표기하되, 압도적인 발음 [순놈] 등만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방법은 ‘수놈’ 등으로 표기하고 복수표준발음으로 [수놈]과 [순놈]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 이외에 표기와 표준발음을 그대로 두고 표준인정발음으로 [순놈]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결국 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뒤의 요소를 유기음으로 실현시키지 않는 단어들을 ‘숫’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다.

‘뱃멀미’는 [배멀미]의 발음이 80% 이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배멀미]는 북한어로 되어 있고 ‘가나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뱃멀미/배멀미’는 이들을 ‘배’와 ‘멀미’의 결합형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일어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기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차멀미[차멀미]’도 동일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위의 답변을 따르면 ‘뱃멀미’와 ‘차멀미’의 구성을 달리 보아야 한다. 또한 ‘가나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어원 정보를 보이며 “어원 정보 ‘뱃멀미’라는 단어는 17세기 ‘ᄇᆡ멀믜’, ‘빗멀믜’, 18세기 ‘ᄇᆡㅅ멀믜’, 19세기 ‘ᄇᆡ멀믜’, 20세기 ‘뱃멀미’, ‘배멀미’로 나타나다가 ‘뱃멀미’로 정착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멀미] 발음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체증은 표준발음([체증])과 현실발음([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교통체증’과 관련한 발음인데, 앞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병’을 의미하는 ‘체증[체증]’의 발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증[광쯩], 병증[병쯩], 염증[염쯩], 중증[중쯩], 통증[통쯩], 실어증[실어쯩], 수전증[수전쯩], 탈모증[탈모쯩], 대인공포증[공포쯩]’에서 보듯이 경음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병’도 [체뼝]이 표준 발음이다. 만약 소화와 관련된 ‘체증’의 표준 발음을 [체쯩]으로 정한다면, 교통 관련 ‘체증’은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하면서 [체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전국 단위에서는 70% 가까이, 수도권에서는 70% 이상이 [교꽈서]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과서] 발음 비율이 높았으나, 60대의 경우에도 [교과서]는 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교꽈서]를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되, 현재의 표준발음 [교과서]를 고려하여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자어이므로 표기법엔 변동이 없다. 아울러 ‘교과목, 교과’ 등의 단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과’는 전국 단위에서나 수도권에서도 90% 이상이 [효꽈]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과]로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는 ‘가나다’ 답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사소리에 대해서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은데, ’효과’의 경우는 된소리가 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효꽈]로 발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발음대로 [효: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원칙이 현실 발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효과’는 [효꽈]와 같은 현실 발음을 함께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발음 정보 상에 [효꽈]/[효과] 순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不法) 역시 약 95%가 [불뻡]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표준발음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기에도 문제가 없다. 60대에서 기존 표준발음인 [불법]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 자체로도 표준발음 실현 정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현실발음([불뻡])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발음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고’는 표준발음인 [창고]와 비표준발음인 [창꼬]가 유사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창고]가 많이 실현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는 [창꼬]로 발음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으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창고] 발음 비율이 높아져 40대부터는 [창고] 발음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창꼬] 발음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준발음과 현실발음 간 비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표준발음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발음 양상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가도로’의 ‘고가’는 [고까]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고가] 역시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도 [고가]가 약 35%의 실현율을 보인다. 한편 세대적 특성으로 볼 때, ‘고가’의 현실 발음은 [고가]에서 [고까]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짐승’은 전국적으로 표준발음인 [길찜승]과 비표준발음인 [길짐승]이 유사한 실현율을 보이고 있어 표준발음을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날짐승’ 역시 표준발음과 비표준발음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적’은 표준발음인 [물찔쩍]과 비표준발음인 [물찔적]의 발음이 약 6:4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표준발음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찜닭’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말샘’에는 [찜닥], [찜달기]와 같이 올라있다. ‘찜닭’은 전국적으로는 [찜딱]이 약 55%로 많으나 수도권에서는 [찜닥]이 60%로 우세하다. 또한 수도권 성장 화자의 경우는 [찜닥]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찜닥]이 많으며(60대 60%대, 15-19세 30%대), 경상권에서 [찜닥]의 실현이 다른 지역과는 역전되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거주권역이 경상권인 경우와 성장권역이 경상권역인 경우 모두 70% 이상). 다른 지역에서 [찜딱]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이는 결국 이 단어에 대해 경상권 이외에서는 ‘ㅅ’이 들어간 합성어형을 만들지만 경상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유사한 수치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찜닥’이 경상권에서 출발한 음식명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는 ‘불고기’가 평안도에서 유입되면서 해당 어휘가 유입되어서 경음화와는 관련 없이 자리를 잡은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의 발음 현실과 ‘찜닭’의 연원을 고려할 때 [찜닥]을 표준발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수 길’과 ‘둘레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우리말샘’에는 ‘가로수 길’이 구로 실려 있다. ‘가로수 길’의 경우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데 지명은 고유명사의 띄어쓰기에 준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므로 ’가로수길’로 붙여 쓸 수도 있다. ‘가로수길’로 쓴다면 수도권 거주자의 80% 이상이 [가로수낄]로 발음하고 있으므로 [가로수낄]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붙여 쓴다면 표기도 ‘가로숫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레길’의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이다. ‘올레길’도 동일하다. [둘레낄]로 발음하는 비율이 전국 단위든 수도권이든 90%가 넘는 다는 점에서 [둘레낄]이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표기도 ‘둘렛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리는 ‘지름길 물길 산길 자갈길 돌길’ 등의 발음이 각각 [지름낄], [물낄], [산낄], [자갈낄], [돌낄] ‘이라는 사실과 ‘모랫길 바닷길 샛길 찻길 기찻길 뱃길’에서도 ‘ㅅ’을 받치어 적는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장사 일’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발음은 [장사일]이 약 65%로 [장산닐]보다 높은 발음 실현을 보인다. 만약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등재된다면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장사일]로 등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빨래 바구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샘’에는 구로 처리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빨래바구니]와 [빨래빠구니]가 유사하게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빨래바구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빨래빠구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높은 연령대보다는 낮은 연령대에서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빨래바구니]와 [빨래빠구니]의 발음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다면 ‘장바구니[장빠구니]’를 고려하여 [빨래빠구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빨래바구니]를 인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빨래바구니]로 표준발음을 정하면 'ㅅ'을 받치어 적지 않아도 된다.

'새우 살'은 '가나다' 질문에 나온 단어이다. '새우'의 '살'일 경우는 구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답변에도 '새우 살'로 적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기의 특수 부위로 '새우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새우 살'이 단어로 등재된다면 '갈빗살, 안창살, 뱃살, 항정살'의 발음 예와 표기를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갈매기살[갈매기살], 볼살[볼살]'의 표준발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 우리말샘 '에 규범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 가부리살(또는 가브리살) '의 표준 발음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5 겹받침

◩ 표15. 겹받침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발음	우세발음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긁고	글꼬	글꼬	87.4	87.7	*		
긁지	극찌	글찌/극찌	53.9/45.9	51.3/48.3		*	*
긁는다	긍는다	긍는다	78.1	87.3	*		
읊고	읍꼬	을꼬/읍꼬	52.0/42.9	52.3/41.4		*	*
읊지	읍찌	을찌/읍찌	38.1/54.7	37,5/53.6	*		*
읊는다	음는다	음는다	79.0	83.1	*		
밟고	밥꼬	발꼬	86.6	86.8		*	
밟지	밥찌	발찌	66.8	65.9		*	*
밟는다	밤는다	밤는다	66.6	73.7	*		
맑지	막찌	말찌/막찌	58.4/40.3	59.7/38.6		*	*
맑다	막따	말따/막따	64.1/34.7	65.5/33.0		*	*

◈ **표준발음법 관련 항목**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ㄻ, ㄺ, ㄼ',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긁다’의 활용형 ‘긁고, 긁지, 긁는다’는 세대, 거주권역, 성장권역 등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발음 실현을 보이고 있어 교육을 통한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방언권별 차이가 심하므로 표준발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글찌]/[극찌], [글꼬], [긍는다] 발음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읊다’의 활용형 ‘읊고, 읊지, 읊는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음 실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발음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을꼬]/[읍꼬], [을찌]/[읍찌]의 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밟다’의 활용형 ‘밟고, 밟지, 밟는다’ 역시 거주권역, 성장권역 등 방원권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 좀 더 넓게 표준발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밥꼬]/[발꼬], [밥찌]/[발찌] 발음에 대해서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맑다’의 활용형 ‘맑지, 맑다’의 경우, 비표준발음인 [말찌], [말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은 발음 실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단어의 활용형과 마찬가지로 성장권역이나 세대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역시 [말찌]/[막찌], [말따]/막따] 발음에 대해서도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ㄹ’계 겹받침 문제와 관련하여 김선철(2004)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도 이번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 *제10항과 관련하여 받침이 ‘ㄻ’인 ‘밟다’의 경우에 표준 발음법과의 불일치가 목격되었다. ‘밟지’는 다른 ‘ㄻ’ 받침과는 달리 [밥:찌]가 표준 발음인데 [발찌]를 64%가 선호하였다. ‘밟고’는 [밥:꼬]가 표준 발음인데 [발꼬]가 90%로 측정되었다. 또 제11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받침이 ‘ㄺ’인 ‘낡다, 맑다’의 경우이다. ‘낡지’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낙찌]가 올바른데, 오히려 [날찌]가 70%로서 [낙찌]보다 더 선호되었다. ‘맑지’의 경우에도 [말찌]가 약 52%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더욱 큰 규모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김선철(2004), 표준어 규범과 현실－②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권 1호, 국립국어원.)*

2.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표1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오해	오해	오해	86.7	86.8	*		
남해	남해	남해	61.0	62.9	*		*
은행	은행	으냉	64.7	63.9		*	*
방해	방해	방해	63.7	63.3	*		*
결혼	결혼	겨론	90.6	92.6		*	

현재 공명자음과 모음 사이의 'ㅎ'은 탈락이 잘 일어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세대적 특성과도 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ㅎ' 탈락형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할 경우 한자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자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므로 앞으로 발음 변화 추이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발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지만 표준발음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나 '은행'의 경우 'ㅎ' 탈락이 더 우세한 것은 단어의 친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현상이 일상대화체에서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2.7 재구조화

◩ 표17. 재구조화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닭을	달글	다글	92.1	92.1		*	
여덟이	여덜비	여더리	67.6	69.6		*	
흙을	흘글	흐글	90.1	90.6		*	
무릎에	무르페	무르베	84.0	84.6		*	
부엌에	부어케	부어케	90.7	89.1		*	
낮에	나제	나제	99.3	99.2	*		
숯에	수체	수테/수세/수체	51.1/20.3/18.1	50.0/21.3/18.3		*	*
솥에	소테	소테/소세/소체	51.3/41.1/3.5	49.0/44.0/3.0	*		*
넋을	넉쓸	넉쓸	87.0	89.4	*		
값을	갑쓸	갑쓸	83.2	83.9	*		

'닭'은 모음 앞에 어떤 변인과 관련 없이 [닥]으로 실현된다. 즉, 완전히 재구조화가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닥] 발음도 표준 발음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표기 자체가 가지는 시각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은 이 표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표준발음에서 '다글'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향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은 모음 앞에서 [여더리]가 약 70% 정도로 [여덜비]보다 높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도 [여더리]가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표준 발음법 개정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흙을’의 경우도 ‘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릎’에는 보수적인 발음을 간직하기 쉬운 ‘-에’ 앞에서도 [무르베]가 80% 이상으로 우세하다. 표준어형을 ‘무릅’으로 할지, 아니면 표준발음을 복수로 인정할지, 아니면 표준 인정 발음이라고 하여 새로운 영역을 설정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부엌에 역시 [부어게]로 발음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적 변인과 관련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표준어형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도 ‘녘, 부엌’은 ‘녁, 부억’으로 바꾸었으나, 1984년 학술원안에서 다시 ‘녘, 부엌’이 되었고 1987년 국어연구소안에서 ‘녁, 부억’으로 다시 바꾼 것을 1987년에 국어심의회에서 ‘녘, 부엌’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이다. 이제 ‘녘, 부엌’을 ‘녁, 부억’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표기의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변인 관련 없이 90% 이상이 [나제]이다. 혹시 [나시], [나슨] 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나제]가 있는 이상 ‘낮에’의 표준발음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숯에’는 전국적으로 [수테]가 약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치](기저형이 숱이건 숯이건)가 있기 때문에 ‘숯’이라는 어형은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테] 자체도 약 50% 정도이기 때문이다.

‘솥에’는 [소세]에서 보듯이 ‘ㅌ’ 발음이 [ㅅ]로 변한 예가 발견된다. 10대의 경우 51.6%에서 그러한 실현을 보여준다. 그러나 60대는 25.6%만 그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넋을’과 ‘값을’은 현재 표준 발음([넉쓸], [갑쓸])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용언의 활용

◩ 표18. 용언의 활용 ◪

	발음		우세형 비율		우세형		
	표준	우세	전국	수도권	표준	비표준	표준≒비표준
주워서	주워서	주어서/주어서/주서서	44.0/46.0/9.5	46.3/42.1/10.7	*		*
붇기	붇끼	불기/불끼/붇기	61.1/27.1/4.8	61.7/26.4/4.4		*	
나무라요	나무라요	나무래요	77.9	78.5			
나무란다	나무란다	나무란다	59.2	60.0			
바라	바라	바래	91.5	91.1			
바란다	바란다	바란다	72.5	71.3			

‘줍다’ 의 활용형 ‘주워서’ 는 전국적으로 [주어서]와 [주워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활용에서 ‘ㅂ 불규칙’ 의 문제이다. 현재의 [주워서]를 그대로 표준발음으로 유지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도 규칙적으로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치이며 큰 변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학교 재학 이상이 65.0%로 [주워서]가 높고 [주어서]는 31.7%이다. 이 경우 ‘주어서’ 도 인정한다면, ‘누워서’ 에 대해 [누어서]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붇다’ 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불어[부러]’ 와 같이 실현된다. 그리고 피사동은 ‘불리다’ 로 나타난다. 이 경우 ‘붇-’ 을 어간 기저형으로 그대로 인정할지 표준어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개별 어형의 발음 문제라기보다는 표준어 사정의 문제이다. 표준 발음은 [붇끼]이지만 그러한 발음을 보이는 경우는 4.8%에 불과하다. 어간 자체에 ‘불다’ 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는 ‘붇다(ㄷ 불규칙)’ 와 ‘불다’ 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무라요’ 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계 없이 ‘나무래요’ 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는 ‘하다/해요’ 처럼 불규칙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때 ‘애’ 형은 어미 ‘아/어’ 가 결합할 때에 해당한다. ‘나무람, 나무라니’ 는 ‘함/하니’ 처럼 ‘나무라-’ 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없다. ‘나무란다’ 는 전국적으로 60% 가량이 [나무란다]도 나오므로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다’ 에 어미 ‘어/아’ 가 붙은 활용형은 표준어에서는 ‘바라’ 이지만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바래]로 실현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불규칙활용으로 처리해서 ‘바래’ 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애’ 형은 어미 ‘아/어’ 가 결합할 때 뿐이다. ‘바란다’ 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항목 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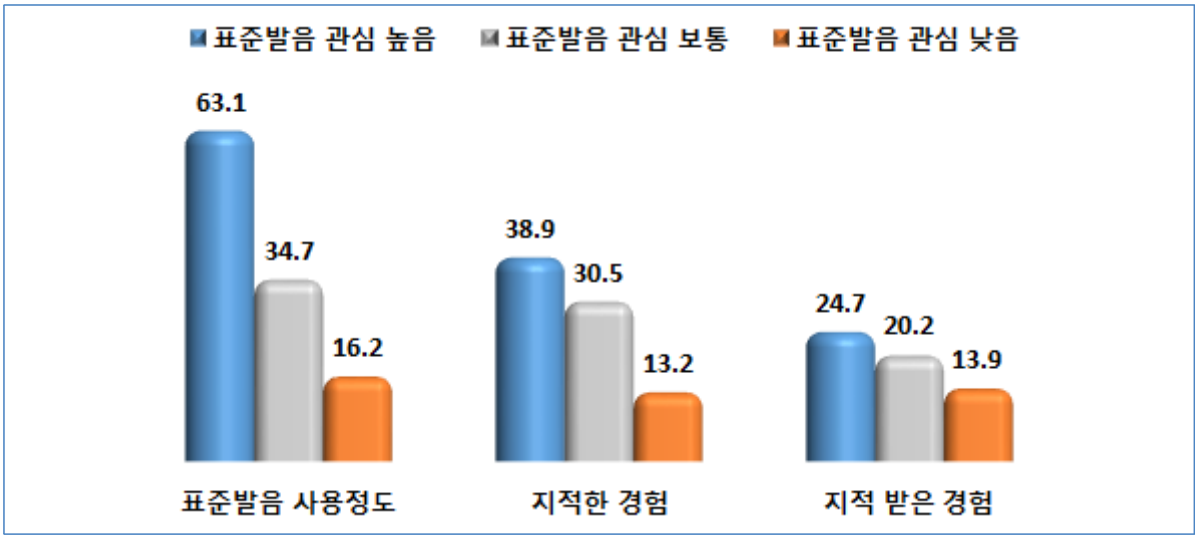
1.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의 연관성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를 표준발음 사용정도, 지적하거나 지적받은 경험과 항목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발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우 표준발음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은 반면 보통의 관심도를 가진 계층에서는 34.7%만이 표준발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향은 비표준발음에 대해 지적하거나 지적받은 경험에서 높게 나타나 관심이 높은 계층이 관심이 낮은 계층 대비 지적경험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와 본인이 표준발음을 한다는 평가 및 관련 지적경험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 : 표준발음 관심과 의식항목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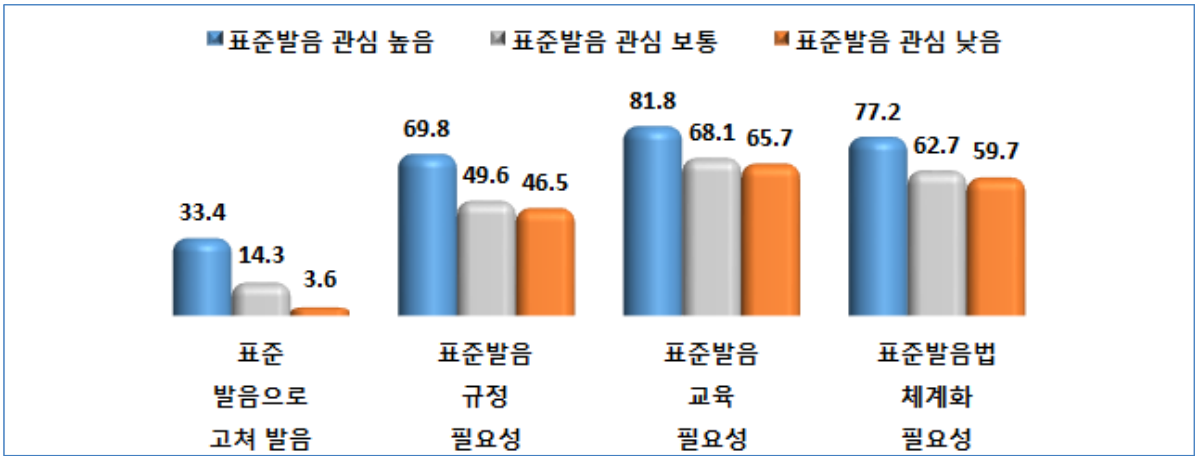


2.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의 연관성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본인의 발음이 비표준발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표준발음으로 고쳐 발음한다는 응답이 관심이 낮은 계층 대비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경향을 표준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발음에 대한 수정노력과 비교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계층과 기타 계층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표준발음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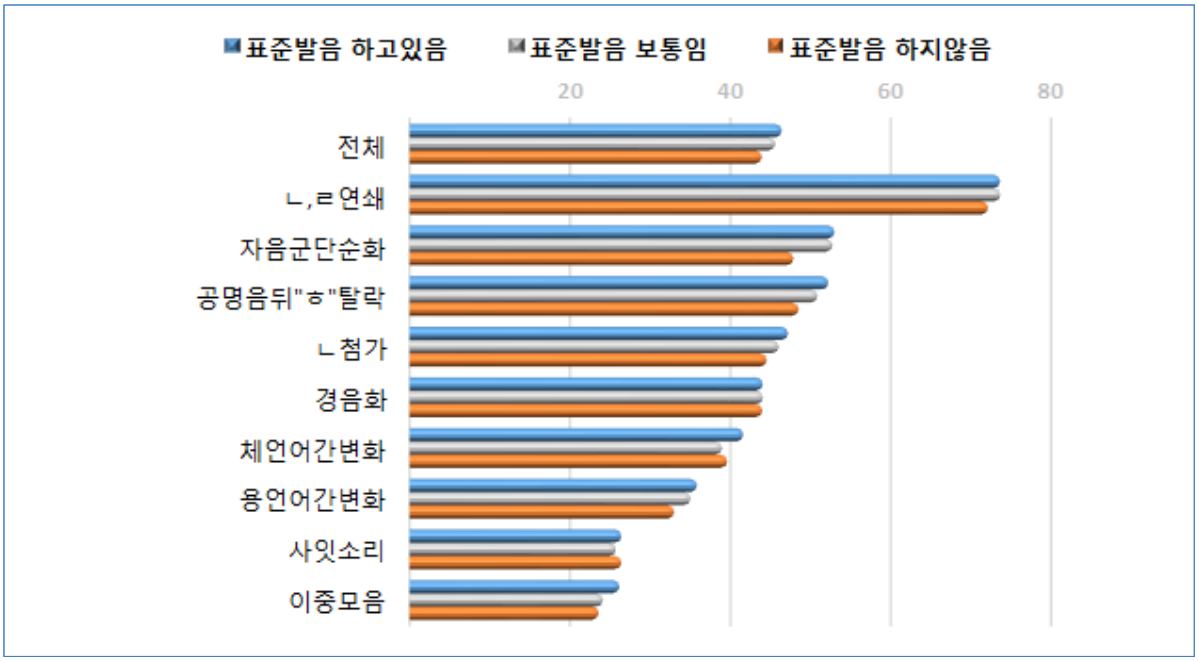
◩ 그림7 : 표준발음 관심과 정책항목 연관성 ◪



3. 표준발음 의식과 표준발음 일치율의 연관성

본인이 평소 표준발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준발음을 하고 있다는 계층에서 표준발음 일치율이 근소하게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준어 발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실제 표준발음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8 : 국어에 대한 관심도 ◪



4.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본인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는 수도권과 전라도에서 자라 수도권으로 유입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타 지역 대비 표준발음과 일치하는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모음' 이나 'ㄴ, ㄹ 연쇄', '사잇소리' 등에서는 전라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 표19. 표준발음 관련 지역 특성 ◪

구분		사례수	전체 일치율	이중 모음	ㄴ,ㄹ 연쇄	ㄴ 첨가	사잇소리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공명음 뒤 'ㅎ' 탈락	체언 어간 변화	용언 어간 변화
	[전 체]	[2,000]	45.7	73.5	52.1	51.1	46.4	44.1	40.3	35.1	26.2	25.0
거주 권역별	수도권(거주)	[1,201]	46.1	73.0	53.5	51.3	48.0	42.9	40.2	35.4	25.8	27.0
	충청권(거주)	[164]	46.5	72.2	56.8	52.8	49.4	47.0	36.1	33.3	25.1	26.9
	전라권(거주)	[155]	47.9	73.8	72.3	49.9	56.4	47.3	40.1	33.4	25.6	20.6
	경상권(거주)	[414]	43.8	75.9	39.9	49.7	37.9	45.9	41.7	35.6	27.5	20.6
	강원/제주(거주)	[66]	44.8	68.7	44.4	56.4	38.1	39.1	43.0	34.9	28.0	21.2
성장 권역별	수도권(성장)	[883]	46.1	71.6	51.2	51.5	47.2	42.4	40.1	36.0	25.5	27.4
	충청권(성장)	[247]	46.1	73.2	56.5	53.2	50.2	46.4	36.4	32.4	25.3	27.5
	전라권(성장)	[273]	48.1	75.6	73.1	47.8	56.9	47.1	40.4	33.9	26.7	21.4
	경상권(성장)	[512]	43.9	76.2	41.6	50.6	38.4	45.1	42.1	35.5	27.3	22.0
	강원/제주(성장)	[85]	44.5	69.8	45.8	55.3	40.5	38.6	42.3	34.7	27.0	22.5
토박이 여부별	수도권 토박이	[856]	46.1	71.7	51.2	51.3	47.4	42.3	40.2	36.1	25.5	27.4
	수도권 유입	[345]	46.1	76.2	59.2	51.2	49.6	44.3	40.4	33.7	26.5	26.0
	지방토박이	[772]	45.2	74.3	50.0	50.7	43.9	45.8	40.5	34.7	26.8	21.8
	지방유입	[27]	45.7	67.9	49.7	58.5	41.7	45.3	36.7	35.2	24.3	25.9
수도권 유입 경로별	충청권유입	[95]	45.1	74.2	55.7	52.8	51.5	45.1	36.5	30.1	25.0	28.6
	전라권유입	[114]	**48.7**	**78.7**	**74.4**	46.1	**56.6**	46.7	41.5	35.4	28.0	23.8
	경상권유입	[113]	44.4	76.7	48.4	54.7	41.3	42.1	43.0	34.8	26.7	25.9
	강원/제주유입	[23]	44.8	69.6	52.2	52.2	47.4	40.1	38.5	34.8	24.9	26.1

4 결론 및 제언

1. 조사 결과 측면

1.1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및 의식

○ 타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와 실천의지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도는 45.8%로 국어에 대한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발음을 사용한다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지만 생활 속에서 표준발음을 지적하거나 하는 경험은 31.7%로 다소 약화되고 있다. 또한 본인의 발음이 표준발음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고치겠다는 응답(21.5%)보다는 그냥 쓰겠다는 부정적 응답(36.1%)이나 상황에 따라 쓰겠다는 유보적인 응답(42.5%)이 높게 나타났다.

1.2 표준발음 정책 관련 태도

○ 표준발음 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공감도

표준발음과 관련된 규정 및 학교교육 필요성, 체계화 필요성 측면에서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어와 관련된 규정이나 교육 또는 체계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를 기존 표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 ‘태릉/태능’ 관련 문항에서 비표준발음이 일반화되었을 경우 복수표준을 인정하거나 일반화된 발음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3 표준발음 일치율

○ 45.7%의 표준발음 일치율과 낮은 지역/의식 연관성

표준발음 일치율의 경우 10개 영역에 대해 측정한 결과 4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일치율이 높은 ‘ㄴ, ㄹ 연쇄’는 73.5%를 보인 반면 이중모음은 25.0%에 그치고 있다. 또한 표준발음 일치율은 본인의 표준발음 관심도나 수도권 등 거주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결과를 볼 때, 일반국민들은 표준발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수정하려는 노력보다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발음에 대한 관심 또한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발음 정책 측면

영역	제언
1. ‘예’의 발음	* **‘례’는 ‘레’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ㄴㄹ’ 연쇄의 발음	* 〈표준어규정〉의 ‘해설’에서 “실제의 발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에 [ㄴㄴ]으로 발음하는 단어와 [ㄹㄹ]로 발음하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그 발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한냉]와 [온냉]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冷’의 음을 ‘랭’으로만 고정시켜 둔 현재로서는, [한냉], [온냉]이 압도적인 발음은 아니므로 현재의 표준발음 [한랭], [올랭]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 이 문제는 **한자 형태소의 발음 기준을 ‘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 국어에 ‘냉하다’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을 참고로 하여 **‘랭’과 ‘냉’의 두 음이 모두 인정했다면 처음부터 ‘한냉’, ‘온냉’처럼 표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선릉, 서오릉, 태릉’**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국어 단어에 존재하는 ‘능’을 한자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발음 **[선능], [서오능], [태능]**을 표기에 의해 **[설릉], [서오릉], [태릉]**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향후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표준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ㄴ’ 첨가	* **‘야금야금’**은 **현실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야그먀금]을 표준발음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수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의 복수표준발음** [야금냐금]과 [야그먀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생이별’**은 현재 비표준발음인 [생이별]이 90%에 이르고, ‘생이별’과 동일하게 ‘1음절 접두사+2음절 단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몰인정’의 표준 발음도 [모린정]이므로 [생이별]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음 실현 상황**으로 볼 때는 **[생이별]만 인정**해야 하겠지만, **[생니별]과 [생이별]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선율’과 ‘강약’**의 표준발음은 [서뉼]과 [강약]이지만 [선뉼]과 [강냑]이 약 70% 전후로 실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서뉼]과 [선뉼], [강약]과 [강냑]을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행녈료]:[해결료]**의 발음 비율은 이 [해결료]가 [행녈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발음 현상은 전국 단위에서든 수도권에서든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현실을 인정하되 기존의 표준발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복수표준발음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좋군요’와 ‘나는야’**의 경우, **규정상으로 볼 때 ‘ㄴ’ 첨가를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이상에서 보듯이 **비표준발음이** 표준발음보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할 경우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 **복수표준발음을 제시**할 경우는 **우세형을 앞에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역	제언
4. 사이시옷	* ‘김밥, 밤새’와 같이 복수표준발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빱/김밥], [밤새/밤쌔]‘처럼 **우세한 발음을 앞에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 ‘**안간힘, 인기척**’은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안간힘/안깐힘], [인기척/인끼척]과 같이 **복수표준발음을 인정**과 함께 발음 정보 상에 우세한 발음을 앞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발음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사말, 반대말, 편지글, 머리글’**은 ‘존댓말’과 동일하게 **‘인삿말, 반댓말, 편짓글, 머릿글’**과 같이 인식되는 경향이 우세하므로 이를 향후 표준 발음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해님’은 [햇님], ‘수놈’은 [숫놈] 역시 현실발음 현황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 개정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숫꿩, 숫나사,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도 동일하다. * **‘뱃멀미’**는 **‘배멀미’**로 표준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교통체증’의 ‘체증[체증]’**과 **소화와 관련된 ‘체증**[체증]’은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하여 후자는 **[체쯩]**으로 표준발음을 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 효과, 불법’은 [교꽈서/교과서], [효꽈/효과], [불뻡/불법]**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세한 발음을 먼저 제시하면서 복수표준발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등재어인 ‘찜닭, 장사 일, 빨래 바구니’는 각각 [찜닥], [장사일], [빨래바구니]로 표준 발음을 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미등재어인 ‘가로수 길’과 ‘둘레 길’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한다면 [가로수낄], [둘레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지명의 ‘가로수 길’은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로숫길’의 표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레 길’은 **‘둘렛길’**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 ‘살’이 후행 요소인 고기의 특수 부위 관련 단어는 **‘갈빗살, 뱃살’**처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도 **‘안창살[안창쌀], 항정살[항정쌀]’의 발음에 기준을 두면 된다. ‘새웃살, 갈매깃살, 볼살’**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이시옷 관련 단어**들의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복수 표준 발음을 확대**하되, **우세한 발음을 앞에 내세우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표기를 바꾸지 않고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할 경우,** 표기와 발음의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준 인정 발음’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기**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표준발음도 그대로 두되** 발음 정보에 현재 **비표준발음이면서 우세한 발음을 표준 발음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 외’ 등에 대해 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영역	제언
5. 겹받침	* **‘ㄹ’계 겹받침의 경우는 어미 ‘-는다’의 앞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ㄹ’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것이 표준발음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복수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규정은 그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혼합으로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현재는 현실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봐도 그 발음의 표준발음은 알 수 없고 어휘에 따라 달리 기억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ㄹㄱ’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이 ‘ㄱ’ 앞에 오는 경우는 ‘ㄹ’만 남는 것으로 기술하면서 복수표준발음 정책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용언 어간의 ‘ㄹ’계 겹받침의 표준발음법 규정**은 현실발음을 고려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용언 어간의 ‘ㄹ’계 겹받침**은 **복수표준발음을 용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 공명음 사이 ‘ㅎ’ 탈락	# ‘표준발음법’ 에 **공명음 사이의 ‘ㅎ’ 탈락**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표준발음에서는 수용되지 않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자음 동화 중 **조음위치 동화를 인정하지 않음을 밝힌 방식과 동일**하다.
7. 재구조화	* **‘닭, 여덟, 흙, 무릎, 부엌, 녘’**처럼 **[닥], [여덜], [흑], [무릅], [부억], [녁]으로 재구조화가 완성**된 단어들은 기존의 발음과 재구조화된 어형의 발음을 모두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 분명하게 **발음의 변화가 인정**되지만 그러한 발음에 따라 **표기를 바꾸었을 때 문자 언어 생활에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표준 인정 발음**’ 항목을 사전의 발음 정보에 제시하면서 **복수표준발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용언의 활용	* “물이 붇다.”의 **‘붇다’는 복수표준어로 ‘불다’**도 고려할 수 있겠다. * **‘나무라다, 바라다’는 ‘하다/해’와 같은 불규칙활용어간처럼 활용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3. 조사 진행 측면

본 조사는 일반적인 면접조사와는 달리, 응답자의 발음 사례를 녹음장비를 활용하여 수집하는 이례적인 조사였다. 이러한 조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본 조사의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표준어 및 발음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준비 과정이 짧지 않았음에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비슷한 성격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참고해야만 할 중요한 이슈와 개선 방향에 대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1 실사 준비

먼저,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응답자를 섭외하는 문제였는데, 면접원의 조사 목적과 취지에 대한 안내 시에 조사 대상자는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을 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 참여를 거절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면접조사 대비해서 많이 발생했다. 후술할 것이지만,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예상시간보다 면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조사 중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향후 동일 조사 시에는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문항수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조사에 익숙한 면접원이 좀 더 쉽게 조사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설득 논리 개발과 면접원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녹음 장비로 활용하였는데, 제조사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플이 달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애플 기반 스마트폰 유저 간에 녹음 장비를 통일하지 못했으며, 스마트폰 버전에 따라서도 사용가능한 어플이 달랐다. 이에 따라 어플간 녹음 품질의 편차가 발생했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나 버전이 다른 경우에도 녹음 품질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녹음과 전사를 실시하는데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 따라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품질의 녹음을 실시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발음 수집은 조사 목적을 충분히 성취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단, 조사 목적 상 필요한 녹음 품질의 수준과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번 조사의 특수한 성격에 대해 파악했기 때문에, 일반 면접조사 대비 더욱 강화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항의 에러율이 높거나 면접원의 조사 포기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문항 수, 조사방법 등 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조사 시 조사 초반에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면접원 간 조사방법을 최대한 표준화시키는 절차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반복적인 교육, 공지사항 전달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3.2 실사 진행

실제적인 조사 진행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먼저 녹음환경의 문제인데, 사전조사를 통해서 녹음 장소, 녹음 조건 등에 대한 안을 미리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자택 안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집안의 소음(선풍기, 아기 등)으로 녹음 조건에 대한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조사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녹음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장소로 응답자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컨대, 조사회사의 좌담회룸 같은 장소는 발음을 수집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면접 진행 중 응답자가 탈락하는 문제이다. 이는 주로 면접 시간과 관련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집해야 할 발음 항목 수에 따른 소요 시간이 응답자들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로는 응답자들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 소요 시간을 사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문항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 안에 가급적 여러 개의 발음 항목을 수집할 수 있는 조사용 문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조사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발음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발음 항목의 난이도 문제인데,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번 조사에서 ‘핵연료’와 같은 단어는 응답자에 따라 ‘핵연료’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 않고, ‘핵’과 ‘연료’의 합성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들에게 ‘핵연료’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쓰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응답자들에게는 ‘핵연료’에 대한 평소 발음이 없는 것이다. 향후 조사 시에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범위 안에서 발음 항목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조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단순 응답이나 의견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사례를 녹음 장비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의 조사였다. 조사설계 기간 소요기간에 대한 검토 과정이 있었으나, 계약된 일정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유사한 성격의 조사 진행 시에는 이번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에서 발견하게 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전적으로 전체 조사 소요기간을 적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주요 이슈	개선 방향
	1. 조사 준비	
1. 응답자 섭외	◆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을 해야 한다는 부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생소함으로 응답 거절이 일반 면접조사 대비 많이 발생함	◆ **조사 시간 축소**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문항수 조절 필요 ◆ **면접원 교육 강화** 응답자 래포 형성 및 정확한 실제 발음 측정을 위해 면접원 교육 강화 필요
2. 녹음 장비	◆ 스마트폰 녹음 어플 사용 시,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플이 달라 녹음 품질의 편차가 발생	◆ **녹음기 사용** 발음 녹음에 적합한 고급형 녹음기 사용이 필요 (발음 현황 수집의 목적과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3. 면접원 관리	◆ 일반 조사 대비 강화된 면접원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특정 문항 에러율 상승 등 조사 실패 사례가 발생	◆ **반복 교육 및 초기 관리** 조사 초반 집중 관리를 통해 면접원간 조사방법 표준화 필요 이후 반복 교육 및 관리 강화 필요
	2. 실사 진행	
1. 녹음 환경	◆ 조용한 녹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응답자 자택 안에서도 애완견, 아기, 세탁기, tv, 선풍기, 에어컨 등의 소음 발생)	◆ **조사 공간 확보** 응답자의 발음과 주변 소음이 같이 녹음이 되지 않도록 녹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용한 녹음 공간 확보 필요 (응답자를 조사회사의 방음 시설과 같은 특정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2. 조사 진행중 탈락	◆ 설문 시간이 비교적 길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발음이 빨라짐	◆ **설문 시간 축소** 조사에 적정한 양으로 문항수로 축소 필요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발음을 녹음할 수 있는 조사용 문장 개발 필요
3. 항목 난이도	◆ 고령자의 경우, 몇몇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조사 진행 상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함	◆ **발음 조사 난이도 조정** 최대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발음 항목으로 구성
4. 조사 기간	◆ 응답자의 단순 응답 수집이 아닌, 발음 사례 녹취하는 방식을 조사로 조사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조사의 특수성 감안한 적정 조사 기간 확보 필요

수행 연구진

총 괄 책 임 자: 김 창 영(월드리서치 상무)
공 동 연 구 원: 김 성 규(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 구 원: 강 상 석(월드리서치 차장)
고 혜 지(월드리서치 주임)

사업 담당자

담 당 연 구 원: 박 선(국립국어원 연구원)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발 행 일 : 2016년 11월
발 행 인 : 국립국어원장 송 철 의
발 행 처 :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
전 화 : (02) 2669-9775
팩 스 : (02) 2669-9737
Homepage : www.korean.go.kr

[비매품]